

新聞人들이여, 힘내라!

신문의 날을 맞아

제58회 신문인들의 날을 앞두고 오늘의 신문을 생각한다. 과연 우리의 젊은 후배 신문인들이 보람있는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가. 후배 신문인들에게 힘내라! 고 외치고 싶다. 어떤 악조건, ‘월급쟁이’를 강요당해도 프로페셔널리즘 정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 한마디로 ‘독립신문 정신’을 지키자고 주장한다. 정진석 교수가 2001년에 내놓은 ‘언론과 한국현대사’를 보면 1896년 4월7일에 창간된 ‘독립신문’이 110년이 지난 오늘보다 앞섰으면 앞섰지 뒤졌다 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첫째, 불편부당. 독립신문은 어느 당에도 상관없고 상하 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45쪽 이하) 둘째, 정부와 백성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 셋째, 대중을 위한 신문 ‘독립신문’은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신문을 읽고 국내외의 정세를 바로 알도록 했다. 넷째, 신문의 비판 기능, 정부 관리의 부정부패나 탐관오리들이 있으면 그 행적을 폭로하고 민간인이라도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신문에 게재하겠다는 것. 다섯째, 한글 전용.

이와같이 창간사에서 서재필이 밝힌 ‘독립신문’은 이 약속을 거의 지켰다. 오늘의 신문에 앞섰다고 보지 않는다. 인터넷과 노트북만 없다 뿐이지 뭣이 다른가. 기자 정신이 살아있지 않은가.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다. ‘독립신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문이 살아 남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다. ‘종이 신문의 종언’을 늦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신문의 잡지화’를 꾀하는 ‘토요판’ 기획이 몇몇 신문에서 시도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기획, 자리를 잡고 있는 ‘내러티브 리포트 (Narrative Report)’는 이 신문이 내세운대로 삶의 현장을 담은 새로운 보도방식이다. 기존의 기사 형식으로는 소화하기 힘든 ‘세상속 세상’을 이야기체로 한 면 전체에 걸쳐 풀어낸다. 최근의 리포트를 보면 ‘상처받은 열아홉 할머니 의사 아들로 19년-대구 광병원 광동협원장 위안부 할머니 치료이야기’ (3월13일자) 그리고 ‘마음 줄여, 희망을 줄여 마침내 복음이 된 잼 중의 잼- 경기 시흥군 소래읍의 잼 만드는 마을 이야기’ (3월 20일자)가 눈길을 끈다.

동아일보는 ‘심층탐사기획 프리미엄 리포트’를 새로 마련하여 ‘젊은이의 자살’ (3월14일자)을 2면에 걸쳐 다루었다. 동아일보는 2014년 들어 채널A와 공동으로 연중기획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

를 2면에 걸쳐 다각도로 다루고 있다.

동아일보의 ‘내러티브 리포트’는 대한언론인회가 마련한 2013년 대한언론상 기획 취재 부문에서 수상했다.

서울신문은 동아일보의 이 기획을 벤치마킹해서 ‘내러티브 리포트’라는 이름 그대로 한 면 전체에 담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서울신문의 리포트는



신우식

·본회 고문
·전 서울신문 사장

‘지적장애 있는 나를 받아주는 곳 없어... 밥은 먹고 살아야지-염전 노예사건 그 이후’ (3월24일자)를 들 수 있다.

지난날 면 수가 적던 시절 신문들은 이른바 ‘내러티브’라고 하여 상·중·하 또는 번호를 붙여서 연재하는 형식을 취했다. 어떤 경우는 10회 또는 20회까지 가기도 했다. 신문은

‘독립신문 정신’에 살 길 있다

‘가축 방역·매몰작업 참여자들의 외상 진보하기 마련이다. ‘내러티브 리포트’ 후 스트레스 장애’ (2월14일자) 그리고 ‘프리미엄 리포트’처럼 고급상품의 이

24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大賞 ‘민중의 지팡이’



한종찬 기자 (연합뉴스 사진부)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린 2013년 8월 6일, 국회 앞에서 근무를 서던 경찰관이 1인 시위를 하는 한 시민에게 우산을 받쳐주고 있다.

〈12·13면에 관련기사〉

름이 붙은 리포트가 자꾸만 나오고 있다. 끈질긴 탐사 추적의 한 예로 지난해 가을의 ‘채동욱검찰 총장 혼외아들 보도’를 들 수 있다. 재단법인 서재필 기념회는 제4회 서재필 언론문화상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을 뽑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서재필 언론문화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남시욱)는 “언론의 본령이 정부와 권력에 대한 엄정하고 용기 있는 감시와 비판이라는 점을 다시 일깨워줬다”고 보고 “공직자의 윤리성과 정직성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 인지를 깨닫게 한 보도”라고 평가했다. 이 상 심사위원회는 이 보도가 채동욱 검찰총장 본인의 반발은 물론 일부 정치권과 언론계의 혹독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후속 보도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친 점을 높이 샀다. 서재필의 ‘독립신문’ 창간 정신을 구현한 ‘추적보도의 모범’이라고 할 만하다. 광복이후 70년의 한국언론사에서 6·25 전쟁과 4·19 혁명, 5·16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건이 수없이 많았으나 우리 언론은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냈다.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광고탄압이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사태를 맞고도 우리 언론이, 우리 신문이 살아남은 것은 바로 ‘독립신문’의 정신이 건재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나 진영논리 등 우리 신문이 부딪친 벽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여기서 나는 대한언론인회가 내는 ‘대한언론’ 3월호의 권두대담 ‘한국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조용중·김진국대담)을 젊은 후배 신문인들이 꼭 읽기를 권하고 싶다. “...온라인 매체가 저렇게 폭발적인 힘을 갖고 등장한 그 자체는 오프라인 매체가 자초한 것이다” (조용중)는 발언도 귀기울여할 대목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의식조사를 보면 기자직 만족이 45%, 그래서 신문을 떠나거나 떠나려는 기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이 대담에서도 사명감이 강조되었지만 사명감을 외치는 수밖에 없다. 이 사명감이야말로 ‘독립신문 정신’과 직결된다고 하면 비약일까.

오는 4월 4일 제58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 날 많은 언론인들이 함께 모여 축하를 높이 들 것이다. 올해 ‘신문의 날’ 표어는 ‘시대가 빨라질때 신문은 깊어집니다’이다. 다시 한번 ‘독립신문’의 정신을 되새겼으면 한다. [K]

정당 이합집산 ‘꼼수’는 안통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를 내세워 신당 창당을 추진하던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 슬며시 신당 창당을 포기하고 민주당과 제3지대 창당이란 방식으로 합당 작업에 나섰다. 선거때마다 술하게 보던 낯은 풍경이다.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 보면 우리나라 정당들의 이합집산은 유난스럽다. 해방 후 수백의 정당이 명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만도 당명이 헛갈릴 지경이다. 선거때만 되면 으레 통합신당들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노선, 정강정책, 얼굴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얼마 전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몇몇 새로운 얼굴들이 구색 맞추듯 추가될 뿐이다.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신군부가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에 뿌리가 닿는다. 그 민정당이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 90년 1월 김영삼의 민주당과 김종필의 공화당이 합당해 민주자유당(민자당)으로 확대됐다. 민자당을 발판으로 집권의 꿈을 이룬 김영삼은 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필의 공화계가 탈당해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결성하자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꿨다. 신한국당은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 이회창 후보가 조순 전 서울시장 등을 끌어들이어 한나라당으로 바뀌게 된다.

김종필의 자민련은 한때 무시할 수 없는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쥐었으나 DJP연합으로 김대중의 집권에 한 축이 되면서 충청권 야당으로 쪼그라든다. 국민중심당, 이회창 중심의 자유선진당, 선진통일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활로를 모색했으나 결국 대선을 앞두고 2012년 10월 박근혜 체제의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에 통합됐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재창당 수준의 화장을 해보려는 여당의 필요와 맞아떨어진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뿌리는 1985년 구신민당 세력이 결집한 신한민주당(신민당)이다. 김영삼·김대중이 대주주였던 신민당은 87년 5월 두 김씨가 탈당해 통일민주당(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사라졌다. 그 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계는 민주당을 버리고 평화민주당(평민당)을 만들어 대선에 뛰어든다.

민주당이 3당 합당으로 여당에 합류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김대중은 91년 4월 당명을 신민주연합당으로 바꾼 뒤 9월 이기택·노무현 등 민주당 잔류파인 속칭 꼬마민주당과 합당해 민주당 간판을 내걸고 대선에 나선다. 대선 패배후 정계를 은퇴했던 그는 정계복귀와 재출마를 결심하면서 95년 민주당을 떠나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든다. 대통령이 된 뒤 새 밀레니엄을 맞아 당명을 새천년민주당으로 바꾼다.

새천년민주당 후보였지만 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성병욱

·본회 논설위원
·전 중앙일보 주필

정치인 물갈이 등
근본변화 없는
‘신장개업’은 속보여

새정치민주연합
대화·타협통한
통합정치로 가야

당내외 지지세력만으로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으로 분당한다. 그러나 2007년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낀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의 탈당파가 대통합민주신당을 꾸리고 다시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 잔류파까지 합쳐 민주당 간판을 다시 달았다. 양대 선거를 1년 앞두고 민주당은 2011년 12월 친노 세력이 주축인 시민통합당과 한국노총을 합쳐 통합민주당으로 변신했다.

선거때마다 야당이 지지표 분산 방지를 명분으로 통합 신당 창당을 거듭하면서도 대개 당명에 민주란 용어를 포함시켰다. 대주주가 민주당이란 정당을 깨뜨리고 새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 외에는 ‘민주’를 당명에 신주단지 같이 모셨다. 분당해 나간 경우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를 포함한 당명으로 회귀하곤 했다. 그리고 당명의 약칭은 으레 민주당이 된다. 그러니 요란하게 통합신당을 만들어도 국민이 보기엔 도로민주당일 뿐이었다.

이번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의 통합신당의 이름도 민주당측의 강력한 요구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해졌다. 다만 약칭은 안철수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주연합이 아닌 새정치연합으로 타협했다. 도로민주당이란 이미지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통합신당이 전통야당인 민주당을 넘어 당명처럼 진정 새정치를 지향한다면 노선도 중도로 폭을 넓히고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 통합의 정치로 나가리란 믿음을 줘야 한다. 정강정책도 중도 노선과 안보를 중시해 온 안철수의 구상이 얼마나 융합을 이루느냐가 관심거리다. 벌써부터 안철수측이 신당의 정강정책에서 논란이 많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을 빼자고 한 것을 놓고 민주당측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러다 새정치는 이름뿐이고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는 제일 야당이란 배경을 얻고, 전통야당은 그를 끌어들여 당장 선거에서 3파전의 위험을 벗어나는 정도에서 마무리지어 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선거를 앞둔 정당의 거듭된 이합집산과 개명은 우리 정치의 고질이지만 그 증상은 야당이 특히 심하다. 선거를 앞둔 야당의 위기의식은 이해할 만하고 우리 정치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정치인의 물갈이, 문제의식, 소명감과 정치의 문제해결 능력 및 행태, 정당의 노선 같은 소프트웨어의 변화여야 한다. 지금껏처럼 선거를 앞두고 당명이나 바꾸고, 몇몇 새로운 얼굴과 그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 신장개업하는 식의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속단 보일 뿐이다. [4]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지난 달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신당으로 합쳐졌다. 정치적 야심을 이룩하겠다는 욕망의 결과이며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계산하고 한 선택에 다름 아닐 것이다. 또 다투고 싸움질할 것이 뻔해 보인다. 합쳐지는 과정에서 범상치 않은 조짐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사슴이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거나 “사슴이 들어간 굴에는 호랑이는 없고 하이에나 들만 있다.”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 굴에는 호랑이, 사슴, 하이에나 뿐 아니라 악어도 있고 사자와 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국립생태원장이며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최재천 교수가 책과 언론을 통해 전파했다는 ‘통섭’이란 말이 떠올랐다. 통섭(統攝·consillience)이란 단어는 웬만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최교수는 2005년 영국 자연철학자의 책을 번역하면서 우리사회에 통섭의 화두를 던졌는데 그 말이 우리사회 곳곳

맛좋은 ‘비빔밥 정치’를 보고 싶다

에 빠르게 파고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교수는 통섭의 개념을 비빔밥을 들어 설명한다. 이것저것 섞어 넣어 풀고 비비면 환상적이 맛이 탄생한다. 밥과 나물과 고추장과 기름 등의 맛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어울려 전혀 새로운 맛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통섭이란 것이라고...

어쩌면 빨·주·노·초·파·남·보 등의 7가지 색깔이 어울려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무지개와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안철수와 김한길 그리고 친노 세력 등이 오월동주(吳越同舟)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멋지고 맛있는 비빔밥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전KBS LA지국장

으로 만들어지고 바른 역사에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무지갯빛 대한민국의 중흥이 이룩되기를...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도지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특히 새 정치를 말하는 안철수의원에게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랄 뿐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각오로 정치를 하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정계에서 철수할 수도 있으며 안철수할 수도 있고 상대를 안을 수도 있고 상대의 품에 안 갈 수

도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에 매몰된 정치가보다는 나라를 바로 이끌어 가겠다는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진 지도자를 국민은 다음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안철수 의원 등이 멋진 정치지도자로 우뚝 서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빔밥의 맛과 멋을 보여주는 통섭의 정당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더 좋은 세상과 더 행복한 국민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지금 진행 중인 통합 내지 새길 모색은 야당의 정체성을 되찾고 이 나라의 의회정치를 선(善) 순환의 궤도에 올리려는 야권의 진통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새 야당의 출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원로 기자의 칼럼에 공감한다.

그러면서 새 비빔밥 정당에 성게 가시 같은 것이 끼어들지 않고 오래돼 상했거나 독을 품은 음식 재료가 섞여들어 몸에 해롭고 냄새나는 비빔밥요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빈다. [4]

兵力감축 지금은 거론할때 아니다

지난 3월 6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은 과거에도 시도되었지만, 최근의 국방개혁 작업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다. 당시 선진화추진위는 1년간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능동적 억제전략, 합동성 강화, 동원예비군 개혁, 무형전력 강화,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인사·교육제도 개선, 무기 획득구조 선진화 등 국방의 전 분야에 걸쳐 62건의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했었다. 이후 국방부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수정작업을 벌였고 장단기 개혁과제들을 식별했으며, 서북도서 방어사령부 청설 등 일부 개혁안들을 실행에 옮겼다. 국방개혁이란 안보환경, 예산사정, 국방현실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국방부가 최근 상황을 종합하여 업그레이드된 국방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당연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시대에 부합하는 개혁안들이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발휘되었다는 사실 역시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전면전 및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포함되는 '능동적 억제'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것, 육군 1·3군사령부를 해체하여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 통합하고 예하 군단들이 중심이 되어 작전을 수행하기로 한 것, 군 간부비율을 현재 29.5%에서 2025년까지 42.5%로 높이기로 한 것, 제주도 방어를 위해 해병9여단을 편성하기로 한 것, 예정대로 잠수함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 공군에 위성을 감시하는 위성감시통제대를 설치하기로 한 것, 차기 다연장, 한국형 기동헬기 등 신무기들을 조속히 전력화하기로 한 것 등은 ‘첨단화·정예화·기동화’로 대변되는 군사력 발전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국방개혁안은 2022년까지 11만1천 명의 육군을 감축하여 전체 병력규모를 63만3천명에서 52만2천명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론적으로야 남북한이 군축을 통해 상호간 소모적인 군사대결을 줄이고 민생경제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국가경제의 20%를 군사비에 투입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에게 이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은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이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2004년과 2012년의 국방백서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이 병력과 육군사단 숫자를 줄이는 가운데서도 북한은 병력, 지상군사단 숫자, 기동여단, 전차, 야포, 잠수함(정), 특수부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력을 증강했으며, 세 차례의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이런 북한에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방적 군축과 평화 구걸’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 평화를 강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육군의 정예화·과학화를 재촉하면서 해·공군의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시기이지, 결코 일방적 병력감축을 논할

특별기고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국방비 증액

예비군 개혁

복무기간연장 선행돼야

압도적 힘의 우위로

북한변화 이끌어야

평화통일로 갈 수있어

때는 아니다.

필자 역시 한국의 출산율이 부부당 1.2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 병력자원의 부족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나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군 정예화와 함께 병력감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이런 사정들과 한반도 안보여건을 종합한다면, 한국군은 병력감축을 검토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세 가지 원칙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첫째, 어떤 이유에서든 현 단계에서 전체 군사력의 감축은 곤란하다. 병력감축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증강되려면 첨단장비, 새로운 군사전략, 무형전력 증강 등이 병력감축의 공백을 메우고 남아야 한다는 뜻인데, 때문에 획기적인 국방비 증액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병력감축부터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예비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병력감축 논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북한군의 지상군사단이 90여개에 달하지만 한국군 육군사단의 숫자는 그 절반에 머물고 있다. 북한군이 대남도발을 감행하는 배경에는 “한국은 전면전을 두려워한다”라는 확신이 깔려있는데, 핵무기를 위시한 비대칭 위협, 지상군의 수적 우세, 예비군 전력의 수적·양적 우세 등이 그런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150만 동원예비군의 정예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 붉은청년근위대, 교도대, 노동적위대 등 700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준군사조직들이 매년 한달씩 입영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동원예비군은 구태의연한 강의식 교육을 첨단장비를 활용한 고강도의 전투훈련으로 대체하고, ‘신속동원’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즉, 동원예비군 훈련의 핵심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숫자의 강력한 전투사단들로 탈바꿈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런 체제를 통해 “전면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태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전면전을 억제하는 길이다. 예비군의 정예화에 앞서 정규병력 감축을 거론하는 것은 대북억제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셋째, 출산율 저하와 복무기간의 반비례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병력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개월의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의 원천에는 안보상황을 무시한 채 ‘복무기간 단축’을 정치공약으로 활용했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원칙적으로 복무기간은 안보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출산율 추세를 감안할 때 복무기간 21개월로 필요한 인력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면 당연히 기간을 늘려야 하며, 남성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면 여성에 대한 징집도 검토해야 마땅하다. 8~10년을 복무하는 북한군이 숙련도와 훈련강도에 있어 한국군을 압도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핵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시기에 한국군이 일방적 병력감축을 거론해서야 되겠는가. [국문]

‘재외동포 언론인대회’ 개최

본회, 4월 20일부터 서울·지방도시 순회

대한언론인회는 재외동포언론인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등 일부 지방도시에서 재외동포 언론인대회(제13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과 700만 재외동포 사회와의 소통 확대, 교류와 협력, 그리고 재외동포 언론 네트워크 및 교육 등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책현안을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재외동포언론의 역할,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 재외 한인신문지원법 등에 관한 주제로 심포지엄, 특강,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및 관광지 방문 등의 일정과 함께 급변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국내언론의 발전 모델을 살펴보고 재외동포언론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며 언론인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번 대회에는 미주 지역 중앙일보 한국일보 YTN 라디오 등 25여 개 유럽 유라시아, 동남아시아 30여 개 언론사 대표 발행인 기자 등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제2회 재외동포기자상(자랑스런 한국인 상) 시상과 원로언론인들과의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는 100여개 회원사



2013년도 재외동포 언론인대회.

1,000 여명의 회원들로 구성, 대한민국 소식은 물론 언론의 자부심을 세계 각국 동포와 현지에 알리는 중대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 김은구 회장이 약속한 대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기대된다. [국문]

박근혜 정부 ‘歴史전쟁’ 이겨야 한다

대한민국은 역사전쟁중이다. 군사강국화를 꿈꾸는 아베신조(安倍晋三)의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 참배, 위안부와 독도 관련 망언으로 불붙은 한·일 역사전쟁과 YS~MB정부가 20년 방치했던 좌편향 국사 교육 개혁 작업으로 드러난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박근혜정부의 역사전쟁이 뜨겁다. 일본군 집단 성노예 문제를 공론화한 박대통령의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바른 역사인식 촉구는 오바마정부의 실전을 독려한 미국 상·하 양원의 ‘위안부 결의안’에 이어 중국과 동남아 제국의 일본 규탄으로 확산되어 국제적인 반향도 컸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아베의 망언 폭주에 미국 의회와 오바마가 제동을 걸며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까지 주선했으나 아베의 침략 사죄를 위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편달해야 할 것 같다. 총리 취임 직후 정한론(征韓論)을 폄되던 요시다 쇼이(吉田松陰) 묘와 2차대전 제1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의 집단자위권에 의한 일본군 해외파병과 일본 군사강국화 정책에 대한 한국과 아시아 제국의 경계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한·미 방위조약으로 혈맹관계를 다져온 한국이 1910년 불의부당한 침략도 사과하지 않은 전범국 일본군의 한국 상륙을 가능케 할 집단자위권론을 위협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일 삼국 관계에서 국익 우선주의로 항상 일본편에 서왔던 미국이 이번에도 일본의 집단자위권론을 한국에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안이다. 일본의 1910년 한국침략 과정에서 미국은 가쓰라 태프트 밀약후 일본을 지원하며 만로주의 채택을 일본에게 요구했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와 1919년 1차대전 종전 파리평화회의에서도 미국은 일본의 한국 병합 부당성과 독립을 호소하려는 한국 대표의 참여 기회를 막았다. 을사조약 무효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상설 특사와 함께 헤이그에 갔던 헐버트 박사는 뉴욕 헤럴드지(1907. 7. 23.)에 “포츠머스에서 루스벨트는 러시아가 한국을 일본에 넘길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 특사의 헤이그회의 참가도 미국이 방해했다. 미국은 한국과 맺은 약속을 저버려 한국의 몰락과 불행을 가져왔다”고 고발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도 “한국은 미국을 신뢰했지만, 미국은 대한제국의 일본병합과 남북 분단 고착화로 두번이나 한국을 배신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이승만은 일본을 앞세우는 미국의 지역 통합전략을 강력



박석홍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위안부·집단 자위권등 미국의 日本편향 경계 한국 중요성 일깨워야

좌편향 교과서

잘못된 내용

철저한 시정 필요

하게 반대했으며, 미국도 이승만을 제거하는 '에버레디 플랜' 쿠데타까지 검토했었다. 1960년 4월 26일 하야하리 이승만 대통령이 매카나기에게 마지막으로 한 발언도 “미 국무성이 일본 편향적이다”는 비판이었다. 6·25전쟁중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조약 체결에도 미국은 일본편에 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한국 침략을 사죄하지 않은 한일국교정상화 조약 체결에도 일본 중심이었던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아베 망언으로 불편해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은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잇달아 나서 극언에 가까운 조언을 했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이 동조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박대통령의 대일 원칙론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미국에 큰 도움이 되는 나라라는 것을 미국도 재인식해야 할 것 같다.

한일 역사전쟁은 전범국 일본의 공개사죄로 사필귀정이 되겠지만 박근혜정부의 국사교육 바로잡기 작업과 좌파와의 역사전쟁은 지금부터다.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정통성과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YS정부에 이어 전교조를 합법화한 DJ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두 대통령 시대를 독재와 외세 의존의 부끄러운 역사로 폄하하며 사회주의 운동 선양과 통일 지상주의를 강조하는 역사 교과서로, 새 세대에게 편향된 교육을 했다. 일부 전교조 교사는 빨치산을 찬양하며 남북 분단과 6·25전쟁 책임까지 이승만에게 전가했고 건국 세대 일부를 외세앞잡이로 매도했다. 역사해석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YS~MB정부의 20년 좌편향 역사교육은 정파적이고 추상적인 역사해석과 선전선동으로 오류가 많았다.

일부 좌편향 교과서가 자발적인 민중봉기로 기술한 대구 폭동(10월), 제주 4·3폭동 등은 소련군과 남로당이 지원하고 지시한 좌파의 반란이었음이 러시아 슈티코프 일기로도 밝혀졌다. 좌편향 교과서의 지침서인 브루스커밍스의 6·25 수정주의 사관도 러시아 문서공개로 허구로 드러났다. MB정부는 2008년 노무현정부가 검인정으로 보급한 6종 국사교과서의 157건 오류를, 박근혜정부는 2014년 MB정부가 준비한 8종 교과서의 829건 오류를 공개했다. 국사 교과서는 중구난방이며 오류투성이다. 일본과 역사전쟁 보다 국내 좌편향사관과의 역사전쟁이 더 심각하다. 박근혜정부가 임기중 국내외 역사전쟁만은 꼭 마무리하길 바란다. [4]

일본은 독일을 본받으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떻게 반성하고 사죄했는가를 똑똑히 보라. 독일은 역대 정치지도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나치 정권의 죄악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가해자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자기들의 전쟁범죄에 대한 응징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만을 강조해왔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짓이었다. 이 글은 일본 국민 모두를 적대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몰염치하고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일본의 일부 정치지도자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 특히 극소수 우익인사들은 독일을 보고 배워야 한다. 그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진정어린 사죄를 본받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상식을 배워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위안부 책임 회피 움직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역사에 눈감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란 점을 깊이 새기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해결방안을 하 루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외교통상부는 일본 참의원이 한국에 '독도 불법점거'의 중단을 요구하는

일본은 독일을 본받으라

溫故知新



황원갑

·본회 전문위원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서도 별도의 논평을 통해 "우리 영토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억지 주장이나 부당한 요구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독도 분쟁화'와 '과거사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변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제정한 일본 시마네현의 정촌회(町村會)는 다케시마 기념관 건립과 오키섬에 자위대 주둔을 위한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는 요망서를 시마네현에 제출했다. 오키섬은 일본에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섬으로, 비행장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일본 자위대가 배치되면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우익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사설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증거하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고 위안부의 증언밖에 없다"며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오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1993년 고노 담화의 재검토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과거 회귀 움직임은 '육일승전기'를 부활시키려는 의도에서도 드러난다. 일본 군국주의 군대의 상징물이었던

이 깃발은 '전범기'여서 그동안 금기시돼 왔으나 최근 일본 극우파 사이에서 육일승전기가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에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그 핵심에는 일본의 무력침략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이 1904년 대한제국의 외교권 침탈 이

후 처음으로 취한 조치가 1905년 1월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복속시킨다는 결정이었다.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이나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의 이면에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를 규정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일본이 약취(略取)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 세력을 구축(驅逐)한다'고 돼 있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으로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행태는 이런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는 한일간의 갈등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전에 한 치도 물러설 이유가 없다. 일본의 과거 회귀 움직임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일본의 극우파에게 묻는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참으로 기가 막힌다.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이 그 증인이다. 이처럼 살아 있는 증인 말고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제국주의에 항수를 갖는 일본, 군국주의 회귀를 모색하는 일본,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갈수록 세계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아베는 현충원에 와서 사죄하라

양국민 감정의 골 갈수록 깊어져

“박구내(박근혜의 일본식 발음·표기) 대통령은 왜 미국과 중국만 가고 일본엔 안옵니까?”

일본의 택시기사의 이런 의문은 남녀노소, 지식의 다소를 막론한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의문인 것 같다. 요즘 일본인 누구 만나도 똑같은 소리를 한다. 반면, 한국의 택시기사들은, “아베(일본총리)가 왜 저러죠? 과거사를 왜 인정하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던진다. 이것은 한국인 대다수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고를 웅변해 주었다. 박 대통령은 “... 일본 정부가 올바르게 용기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이)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자 이튿날 일본의 각신들은 일제히 사설을 싣고 박 대통령을 공박했다. 사설들의 제목과 語順, 語句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집약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체 언제까지 反日을 할 작정인가?”였다. 사설들(TV방송의 해설들도)은 박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경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일본의 대학에서 2년, 신문사 특파원으로 7년간 일본에 살면서 각계각층의 일본인들과 알고 지내면서 어지간히 그들을 안다고 생각했던 나도 요즘 일본과 일본인을 새삼 알기가 힘들게 됐다. 내가 아는 일본언론의 논조나 지식인들의 박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두가지였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反日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이 통했다. 그런데 딸 박근혜는 왜 그토록 반일인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 일본을 대할때면 나는 무척 답답해진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표현대로 ‘시마구니곤조(島國根性)’를 생각하게 된다. 일본인은 길가다가 옷자락만 스쳐도 ‘아 미안’(도모 시쓰레이)을 연발한다. 그만큼 남에게 폐되는 것(일본말로로는 메이와쿠·迷惑)을 두려워 한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또는 중국에 대해 폐기친 것에는 전혀 무감각 하다.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거냐’며 顔色을 바꾼다.

특히 지도자들이 그렇다. 독일의 지도자들이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아우슈비츠가 있는 폴란드를 찾아가서 무릎꿇고 사죄하는, 멘탈리티가 일본의 지도자들에게엔 없는 것이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과거 나치스와는 다른,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지금의 독일이 다시는 나치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의 지도자들이 왜 독일처럼 과거의 군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과오를 자유민주일본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못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일본은 왜 그걸 못하는가?

일본인들 군국주의 영광부활 꿈꿔

독일이 나치독일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과거 군국주의일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는커녕 그 영광을 되찾고싶어 하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그렇고 지식인, 전문가들이 쓰는 책들이 그렇다. 이들은 일본이 개화하면서 歐美白人들로부터 차별을 받았으며, 일본은 그런 불평등을 극복하고 英美등 열강과 대등한 군사력으로 아시아의 共榮을 위해 대신 싸우다가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며 쓰고 있다. 군국주의는 그 수단이었을뿐, 다소 과한 면은 있었을지 몰라도 크게 잘못된 것은 없지 않느냐는 논리가 교과서나 지식인들의 저서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 과거 ‘조선’은 일본의 일부였고 징용이나 징병, 정신대나 위안부는 1938년에 공포된 국가총동원령에 의거, 조선사람들도 ‘합법적’으로 동원됐을뿐이라고 강변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1965년 일본과 국교정상화 했는데 그 딸인 ‘박구내’ 대통령은 왜 그리 반일적인가-가 그들의 定型化된 논리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였다는건가?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가 아니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박정희는 비록 일제치하의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했고, ‘우수생도’로 뽑혀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유학’,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그 학교를 나왔다. 그러나 박정희는 친일파가 아니라, 用日派였다. 즉, 국가재건을 위해 일본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5·16거사직후 國庫에 돈이 바닥나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이 주도한 쿠데타를 후회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국고에 남아 있는 외화는 2천만달러남짓 했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박정희는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32세의 李東元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줄은



이도형

·본회 상담역
·한국논단 발행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정희대통령 들먹이며

박근혜대통령 비판

日언론 등 그릇된 시각

日本지도자가 할 일은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

그래야 해결가닥

잡힌다

미처 몰랐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다복하게 하는게 내 정치목표였는데, 알고보니 이 나라엔 돈이 한푼도 없단 말이야.”

박정희는 권력을 잡은지 6개월만인 1961년 11월 11일 미국가는 길에 일본을 찾았다. 그는 나이로나 경륜으로나 맞설 수 없는 일본의 지도층에게, “...국민감정을 떠나 양국이 손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조국근대화를 도와달라”며 머리숙였다. 楚王으로 용명을 날렸던 韓信장군이 젊었을 때 시비를 걸어오는 시정잡배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던 故事를 연상케 한다. 조국의 재건을 위해 박정희가 겸손하게 일본지도자들에게 간청한 결과 박정희는 외환보유고 14억달러의 일본으로부터 무상3억, 유상2억, 상업차관 1억달러의 돈을 받아 浦鐵을 비롯한 울산공업단지와 경부고속도로등을 만들어 조국을 재건했던 것.

‘박구내’대통령이 그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일본의 지도자들이 연이어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그들을 만나야 할 이유는 없다. 일본인들은 이점을 깨달아야 한다. 즉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일본수상을 만났을 때, “...정치적인 배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다. 일본의 지도층과 관료는 박정희의 이 말을 ‘정치적 보상은 포기’하고 법률상 근거가 있는 청구권(징병·징용등에 대한 급료·은급등)만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후 일본은 우리가 종군위안부등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요구할때마다 ‘1965년의 타결’을 들고 나온다. 그러나 박정희가 ‘정치적 배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留保지 포기는 아니었다.

일본은 힘에 의한 한국強占을 독하면 ‘지나간 일’로 아주 간단히 치부하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의사’로 의도적, 조직적으로 남의 나라를 강점하여 노략질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녀자를 유린하고 저희들의 국어와 종교를 강요하며, 듣지 않는자는 무차별 살해 또는 고문하는 등의 악랄하고 잔학한 행위를 했다. 그토록 당한 나라의 국민이 어찌 이 잔혹한 과거사를 잊기를 바라는가. 그들이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은 마치 강간살인한자가 희생자의 집에 불이 났을 때 돈까지 챙겨갔다(일본어로 火事場泥棒)가 보상 하라니까 몇푼 던져주고 ‘과거는 끝났다’고 하는 물염치, 몰도덕의 태도다. 물론 지금 일본이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의 독일인들이 과거의 나치스가 이웃나라에 대해 저지른 행각을 부끄러워 하며 거듭거듭 사죄하듯, 일본도 과거의 군국주의자들의 조선·중국에 대한 집단적 잔학행위를 부끄러워 하며 사죄해야 마땅하다.

“위안부는 없었던 일” 발뺌 급급

그런데 일본은 거꾸로 ‘그때(군국주의시대)가 좋았다’며 ‘잃어버린 (군국주의)영광’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역대총리들은 거의 빠짐없이 야스쿠니신사를 찾아가 참배를 하고 종군위안부는 없었으며 난징학살도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만 하고 있다.

하기야 일본은 바르샤바근교의 아우슈비츠같은 학살의 현장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인(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이 쓴 자료에 따르면 태평양전쟁시기인 1940년 전후해서 북해도의 한 탄광에 연행된 조선인만 6천명이 넘는다. 그 대부분은 혹사와 굶주림을 못견뎌 죽었다. 당시 북해도 동부에만도 30여개소의 탄광이 있었으며 강제연행된 조선일들은 이 지역에 고루 배치되었었다. 탄광이 몰려있는 규슈(九州)의 미쓰비시(三菱) 탄광등에서도 5천여명의 조선인이

연행·혹사 끝에 죽어갔다. 일본전국에는 2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보다 나을것이 없는 조선인들이었다. 그런데도 ‘과거는 없다’ 또는 ‘흘려버리자’는 것이 일본인들이다. 어찌 잊을 수가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천년이 지나도 잊을수 없는 일들’이다.

일본인과 그 지도자가 할수 있는 일은 분명하다. 진심으로부터의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다. 아베일본총리는 단전만 부릴게 아니라, 항일독립투쟁 끝에 옥사한 사람, 고문치사당한 분들이 묻혀있는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와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독일은 빌리 브란트로부터 메르켈에 이르는 역대수상이 다 했는데 일본수상은 왜 못하는가? ‘박구내’가 아베를 만나지 않는다고 속알머리 없는 소리를 낼것이 아니라, 아베가 지금 당장 현충원을 찾아라. 한일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그때부터 풀릴 것이다. [㉠](#)

김정은 국제 형사재판 회부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 통일대박론을 터트리고 25일 취임1주년 담화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구상을 발표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저녁 송년회에서 "오는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대세습 수령독재체제인 북한은 전조없이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 절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한붕괴가 바로 통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통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회인 것 만은 틀림없다. 통일은 우리가 이런저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통일전략목표는 하나지만 방법은 여러갈래다. 유일지도체제인 수령체제는 특성상 강력한 내부 억압장치와 대남적대정책에 따른 무력도발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세습수령체제가 존재하는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통일을 위해서는 현재의 반인도적이며 폭압적 세습수령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과 평화적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합의통일이 이상적이지만 그런 노력은 지난 70년간으로 족하다. 70년간 잔혹한 노예생활로 빈사상태에 빠진 북한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도 빠른 통일이 가장 인도주의적이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를 통해서 통일의 전제인 수령체제 해체를 위한 평화적 가능성이 수평선위로 떠 올랐다. 지금까지 수령체제의 억압과 잔혹성은 탈북자들과 세계 인권단체들의 증언으로 이미 잘 알려져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보고서야 말로 김정은 수령체제의 잔혹한 인권말살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고발장이다. 이 보고서는 12만의 정치범수용소 감금, 집단살인, 집단기아, 노예화, 고문, 강간, 강제낙태와 정치·종교적동기의 각종 핍박 등 반인도범죄를 규탄했다. 보고서는 이런 일련의 반인도범죄의 중대성과 규모, 성격은 현세기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면서



여영무

·본회 논설위원
·남북전략 연구소장
·국제법학 박사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북한 인권 조사

유엔 보고서 통해 권고

안보리서

中·러 기권하면

목표달성 할 수 있어

북한노동당 제1위원장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특별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존 케리 미국무장관도 2월 26일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이라면서 모든 법규정의 적용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는 3월중 인권이사회와 가을 총회 보고를 거쳐 처리방향이 정해지겠지만 우리정부도 통일 목표달성을 위해서 주도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안의 ‘휘발성’ 등에 지레 겁을 먹고 김정은 등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는 노력을 금기시하거나 과거의 타성에 빠진다면 절호의 통일기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우를 범할 것이다. 유엔이 공식결의를 거쳐 북한의 인권 억압실상을 다각도로 조사해 만든 종합보고서는 유엔 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등 조사관들의 헌신적인 공헌과 수십 년동안 우리 NGO와 인권단체들의 피땀어린 노력덕분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 단죄하는데 90%까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10%의 노력만을 남겨놓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유엔총회 보고후 김정은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회부 논의를 위한 안보리 소집과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고 한국인인 반기문 사무총장의 도움도 얻을 수 있는데다 중국마저 김정은과 척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정부가 최소한 중국과 러시아를 기권토록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회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일단 김정은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국제체포영장이 발부되고 120개국의 국제형사재판규정 가입국은 김정은을 체포할 권한을 가진다. 김정은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 앞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다. [W]

언론가 소식

한국신문협회 회장에 송필호씨



한국신문협회는 3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송필호 중앙일보 발행인을 44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16년 3월 정기총회 때까지다.

문화일보 이병규 회장 선임



문화일보는 지난 3월 21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회장 겸 발행인에 이병규(61) 사장을 선임했다. 이 신임 회장은 현대그룹 회장 비서실장, 문화일보 수석부사장, 서울아산병원 부원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경제 이종환 사장 선임



서울경제신문사는 5일 이종환 부회장을 대표이사 사장 겸 발행인·편집인으로 선임했다. 이 사장은 1984년 한국일보 수습 42기로 입사해 서울경제 편집국장·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MBC 안광한 사장 선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는 2월 21일 오후 2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안광한 MBC플러스미

디어 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일보 최삼규 사장 선임



국민일보는 2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국민일보 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사장, 발행인에 최삼규 상무이사를 선임했다. 최사장은 강원대를 졸업하고 국민일보 사회부장, 판매국장, 경영전략실장을 역임했다.

한국경제 김기웅 사장 연임



한국경제신문은 2월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기웅 현 대표이사 사장을 재선임했다. 김 사장은 한경 편집국장, 이사, 한국경제TV 대표이사 등을 거쳤으며 2011년 3월부터 한국경제신문 사장으로 일해 왔다.

한겨레신문 정영무 사장 선임



한겨레신문사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정영무 전 논설위원을 3년 임기의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정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경제부장, 편집국 수석부장, 광고담당 상무 등을 지냈다.

사우회 소식

다채로운 동우회 활동 소식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태선)는 지난 3월 20일자로 동우회보 36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16면 컬러판으로 나온 이번호는 금년도에 있을 활발한 동우회 사업계획이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회원명부 새로 제작, 5월 13일 임시총회 겸 단합대회, 4월 25일 회장배 바둑대회, 해외 지방조직 결성, 매달 2화 4토 등산, 사진 서예 음악감상 헬스클럽 운영, 명사초청 강연회 등 금년도에 추진할 다채로운 사업들이 소개되었다. 시청자 만족도 8분기 연속 1위를 기록한 종편 채널A 소식을 머리기사로 한 이번호는 특히 김태선 회장의 ‘북한 인권 두고만 봐야하나’, 김광희 회우의 ‘올림픽 메달 단상’, 이종세 회우의 ‘소치의 교훈 살려 평창서 웃자’, 동우 산클럽 금년도 시산제, 동우 사진클럽 작품 지상전시, 조강환 회우의 ‘세계8대 불가사의 바위 궁전을 가다’ 등 많은 읽을 거리가 돋보인다.

사우회보 25호 발행

서울신문

서울신문 사우회(회장 김문진·본회 부회장)는 지난 3월 25일자로 회보 25호를 발행했다. ‘서울신문 사우회’로 제호를 바꾼 이번호는 타블로이드 8면으로 다양한 소식들이 실렸다. 사우회 4기 집행부출범 김문진 회장 재선임 머리 기사를 시작으로 사우회 회장단 얼굴이 나와 있고 3면 사우회 초대석에는 대한언론인회 김은구 회장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7면엔 서울신문 사우들이 대한언론인회집행부

에 대거 입성했다는 소식도 보인다.

사우회보 143호 발행

KBS

KBS사우회(회장 정근춘)는 지난 3월 1일자로 사우회보 143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8면 컬러판으로 나온 이번호는 ‘2014년 사우회 예산안 4억원 규모 총회 통과’ 머리기사가 돋보인다. 2014년 컬러판 회우수첩 발행 소식, 대구 전주 청주 지회 활동, KBS인사등 다양한 소식과 함께 정기총회 이모저모가 화보로 실려 있다. 6면엔 고 박권상(본회 회우) 전 KBS 사장에 대한 대한언론인회 김은구 회장의 추모사도 보인다.

2014년 시산제



한국경제

한경사우회(회장 엄영섭)는 지난 3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근교 불암산에서 2014년 시산제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엄영섭 회장, 고재혁 사무총장, 이윤래 산악회장 등 회원 30여 명이 참석, 갑오년 무사 산행을 기원했다. 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산악회 발족이 올해로 5년이 됐으며 “산은 항상 우리를 반기고 있고 우리 건강을 지켜 주고 있다”며 아름다운 친목이 되도록 회원 단합을 강조했다.

大韓言論 지면혁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大韓言論’에 대한 회우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창간이후 처음 실시된 설문조사는 3월호가 배달된 이후 3월 25일까지 20일동안 204명의 회우들이 보내온 1차분 의견들을 집계한 것이다.

먼저 지면에 대한 만족도에서 135명이 “보통”으로 66.2%, “만족” 37명, “불만”이 32명으로 비슷한 숫자였다.

두 번째 ‘大韓言論’의 체제 항목에 대한 의견에서 제호를 “현재대로 하자”는 의견이 55.9%(114명)로 가장 많았고 “한글로 바꾸자”는 의견이 25명, “현 제호를 유지하되 디자인은 고치자”는 의견이 40명이었다. “본문과 제목에 한자를 병용하자”는 사람이 79.9%(163명)나 되었다. “한글전용”은 33명, 향후 예산 허용시 “주간발행체제”가 15명, “월 2회 발행” 62명, “현재대로 월간으로 하자”는 회우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 번째 항목인 지면에 대한 의견에서는 “지나치게 보수 논조”(46명)여서 “중도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회우가 121명. 그러면서도 “종북·친북 진영에 대한 비판은 더 강화하라”는 의견이 많았다(88명).

현 지면에 논란이 “너무 많고 장문이어서 무겁다”는 회우가 136명(66.7%)이었고 “현재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45명이었다.

네 번째 항목, 회원의 참여도에서 우선 “논단에서 외부인사보다 회원의 집필을 늘리자”는 의견이 163명(79.9%)이나 되었고 “원고청탁과 취

설문조사 1차접수 결과

“회우 집필 더 늘리자” 80%로 압도적 중도시각·종북비판 강화 주문 많아

재요청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회우가 114명이나 되었다.

회우동정을 더 발굴해서 많이 반영하자는 의견에 가족동정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53명이었다.

다섯째 항목, 홈페이지 활성화 의견이 84명, 현수준유지 62명, 인터넷신문 창간필요 36명, 월간 실버저널(가칭)창간을 희망하는 회우는 57명으로 IT분야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04명의 1차 응답자중 120명이 기명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회원들은 설문응답 외에도 ‘大韓言論’에 대한 큰 관심과 나아갈 길 등을 별지(뒷면)에 적어보내기도 했다. 많은 의견을 개략적인 동류(同類)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한언론의 체제문제: 신문의 신문(비판신문)형태로 해서 실종된 저널리즘의 전문성, 신뢰성을 찾아주는 언론선배의 진지한 모습이 보이는 지면을 만들자는 의견. 이 경우 회보는 별도 발행.

* 대한언론의 기조문제: 국익을 대

변하는 바른 소리로 보수를 유지하되 중도, 진보적여론도 수용하자는 것.

* 집필진(대내외)의 다양화와 전문화문제: 지면배정의 조화 요구에서부터 젊은 회원과 여성회원에 지면할애, 현직언론인 집필유도 등.

* 지면의 효율적 배열문제: 논단, 실버파이팅, 병은 낫는다, 온고지신, 별세회우에 대한 추도문 등이 장문이고 편집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

* 취재형태: 탐방 정신을 강화해서 퇴직 후에도 전공을 살려나가는 회우, 자아실현의 정열현장에서 많은 회우들이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극과 도움이 실례를 발굴.

결국 대다수 회우들 목소리의 결론은 ‘大韓言論’의 지면을 발전적으로 혁신하자는 것이었다. 시대에 맞는 매체로 환골탈태해서 후배언론인들에게 정도(正道)를 가르쳐 줄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러기 위해 편집형태의 다양성, 변화성, 신속성과 성실성까지 요구하면서 편집위원진의 선정과 운영을 면밀히 연구하자는 의견도 제기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요구와 희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점차 개선’ 일 수밖에 없었다는 편집·발행인의 어려움이 다.

이상의 ‘大韓言論’에 관한 다양한 의견 외에 사업에 대한 건의와 충고도 많았다.

* 회원확대방안: 현직 신문, 방송의 편집국장, 보도국장 등과 논설위원, 국장, 부장급 현역들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연구.

* 회장선거 과열 방지책 필요.

* 대한언론인회 조직확대(전국에 지회 설치 등).

* 사무실 공간 확장문제: 정부와 관계기관의 원로언론인들에 대한 대우가 소홀함을 지적, 적절한 채널로 강력히 건의.

* 일반사회와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계획.

*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충분히 검토, 지속성이 있는 것을 차례로 하나씩 추진하라는 충고.

* 이번 설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 했더니 동네 우체통이 철거되어 우체국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많은 회우들이 동네 마트 등에 우체함 설치운동을 대한언론인회가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

이번 1차 응답자는 남성회우가 202명, 여성회우 2명, 70대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53명, 60대 19명, 50대 2명이었다. [4]

본회 발전방안 심도있게 논의 상담역-자문역 간담회등 잇따라 개최

대한언론인회 김은구 회장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8일 사이 상담역 간담회, 사업단과 각위원회의 단장 위원장 합동회의 그리고 자문역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발전방안을 깊이 있게 협의했다.

상담역 간담회

지난 2월 27일 정오 프레스클럽 19층 엠바고 홀에서 열린 상담역 간담회자리엔 제재형 조창화 고문과 흥원기 명예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신임 김은구 회장은 특히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하고 있는 ‘대한언론’에 관해 광범위 하게 회원들의 의견을 수집, 지면을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상담역 간담회.



자문역 간담회.

자문역 간담회

지난 3월 18일 정오 프레스클럽 19층에서 자문역 간담회가 열려 대한언론인회 현황과 현안문제 등에 관해 많은 의견들이 교환됐다. 최서영 의장을 비롯, 김영수 노철용 김후란 신경식 윤상철

이종식 이덕주 이종전 정광현 이재원(간사)자문역등 11명의 자문역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대다수 자문역들은 대한언론인회의 재정기반 확충에 관심을 표명하고 광고 유치는 물론 기금 확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몇몇 자문역은 기금 확충방안으로 임원분담금제와 평생회비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흥원기 명예회장도 자리를 같이 했다.

사업단 단장·분과위원장회의

지난 3월 13일 사업단, 분과위원장

합동간담회에서도 활발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대외협력사업 확대와 홍보출판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외교포언론인대회의 성공적 개최, 못다한 이야기 4집 출판, 월간 ‘대한언론’의 지면 쇄신, 인터넷신문 창간, 현역 언론인들을 예비회원(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실록 언론인의 길’ 제4집 출판기로

대한언론인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그때 그 현장 못다한 이야기’ 제4집을 출판한다. 올해 집필 예정자는 40명이며 출판위원회의를 열어 선정한 뒤 집

필요량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만 70세 이상으로 집필을 희망하는 회우(이미 집필한 회우 제외)는 3월 말까지 일단 전화로 신청바랍니다. 전화 접수 후 원고청탁서 발송할 계획임.

관훈클럽 미래위원회 발족 조용중·구월환회우 위원 참여



관훈클럽(이용식 총무)은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할 가칭 미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는 조용중 본회 원로회우(전 연합통신 사장·사진 왼쪽)구월환 본회회우(전 세계일보 주필·사진 오른쪽)등 7명으로 구성됐다.

문서위조 여부에 문헌 간첩의혹

위장 탈북 화교 유우성(중국명 유가강)의 국보법위반 1심 무죄 판결 후 북·중 입·출경 문서 위조 파문으로 국정원이 매스컴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개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27년 경력의 국정원 대공요원 권도 과장이 “간첩은 잡아야 한다”고 수사의 균형을 촉구하며 자살을 기도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복잡다단함이 드러났다. 어느 신문은 한 세기도 전의 프랑스 ‘드레퓔스’ 사건을 끌어다대고 유우성을 한국인이라며 결백을 주장하는 기고도 실었다. 간첩 여부는 관심 밖인 듯했다. 신문들은 국정원이 ‘암 덩어리’라는 민주당 대표 김한길의 극언에도 비판이 없었다. 좌익 정권은 ‘암 덩어리’라서 수천 명의 검·경, 국정원 대공 인력을 난도질해 대북역량을 와해시켰나. 일부 지는 권 과장 자살기도로 문서위조 수사가 벽에 부딪혔다고 우려하며 뒤늦게 ‘방첩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허둥대는 인상을 주었다.

‘국정원 처내는 以夷制夷’

문화는 3월24일 ‘...대공 일선의 항변’ 사설에서 “권 과장은 ‘인권도 중요하지만 간첩은 잡아야 한다. 간첩이 나라를 팔아먹고, 기관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작금의 상황을 ‘북한이나 중국으로선 대한민국 검찰을 통해 국정원을 처내는 이이제이’로 함축했다. 정치인이 ‘은닉 요원’의 실명까지 드러나게 한 행태는 ‘이완용의 매국’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면서 “요란한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공 첩보라인을 붕괴시키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복원까지는 장시일을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간첩 간수(정수일)사건, 일심회·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훈장을 탄 벼테랑이다. 동아일보는 25일 ‘국정원-검찰 싸우다 간첩 놓치고 대공요원 잡을텐가’ 사설에서 “유서에는 대공수사요원으로서 자존심이 무너진데 대한 역울함, 국정원 조직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휴민트 보호가 국가안보에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정원의 과오와 무능을 덮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 국정원은 뼈를 깎는 반성을 전제로 대공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썼다. 허나 현 국면을 국정원과 검찰의 싸움으로만 볼 수는 없다. 위기에 빠진 중북 세력의 총궐기일 수

있다. 19일 같은 동아 ‘배인준 칼럼’은 “중북 이적단체가 활개 치는 대한민국.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 중추기관 어디에도 간첩이 없을까. 국가안보나 다수 탈북자들의 안전보다 간첩 피의자 한 사람의 인권을 더 강조하는 변호사, 국회의원, 언론이 정의를 외치는 것이 오늘의 한국이다. 대북·대외 공작과 방첩분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조직의 비범한 야성을 창출해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국정원 개혁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자살 시도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동신문에서 ‘오빠는 간첩’이라고 했다가 민변 지원을 받으면서 강압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부인했다. 1심은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다. 간첩혐의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순백이 아니며 간첩이 아닌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린다. 유우성이 지인을 통해 26억원의 탈북자 대북송금을 해줘 거액을 벌었다는 보도에 대해 민변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논지를 펼쳤다.

“남 원장 퇴진 북한 중북 세력만 반거”

문화는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과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탈선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붕괴 수준으로 취약해진 대공 역량을 고려하더라도, 남 국정원장 등 지휘부를 비롯, 관련 라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북한의 도발 및 급변 가능성이 커지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보듯 국내 중북의 준동 역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국정원’이 절박한 상황이다. 국정원을 직할하는 대통령이 직접 대공 역량과 지휘부 쇄신에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반면 아시아투데이는 18일 사설에서 “간첩의혹을 받는 사람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당당하고, 검찰수사를 도우려던 국가기관 수장은 퇴진압력을 받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남재준 원장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무너진 휴민트 복원을 추진 중이다. 남 원장이 물러나면 반길 세력은 북한과 국내 중북 세력 밖에 없을 것이다”고 썼다.

뽕 뿜린 정보고속도로로 간첩이 암약한다. 일심회 간첩단은 압수수색이 어려운 구글 이메일을 썼다. 유우성은 탈북자정보를 QQ라는 중국의 인터넷 메신저로 건넸다고 한다. 2012년 1월 조선 최보식 칼럼은 “간첩단 수사가 인권이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민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피의자들은 법적인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우리 사회에서 ‘간첩 잡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했다. 임채정 국회의원장 정무비서가 2인자로 드러나 최고 7년 징역이 확정된 왕재산 간첩단사건을 민변은 용공조작이라고 우겼다. 접선 동영상은 중국 허가를 받고 찍었냐고 대들었다. 이제 간첩사건도 남남갈등처럼 정쟁화하고 수사, 재판, 언론보도로 파급된다. 국정원 요원이 자결로 항변해야 관심을 가질 것인가? 2015년 적화통일전쟁을 호언하는 북한이다. 위기의 바로 보기를 외면하는 신문들은 극소수 우익, 탈북자 매체가 대신함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K]

국정원 요원 자살시도로 새 국면 대공역량강화-지휘부 쇄신 촉구

국정원 요원의 토로도 눈여겨보아야 라는 사설에서 “권 과장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정보기관의 활동을 합법의 틀 속에만 가둬두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소 무리를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국정원 내에 있다면 그건 국정원이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더 큰 원칙에 위배된다. 국정원이 알았건 몰랐건 국정원이 입수해 법정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는 사실은 국정원이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라고 경고했다.

“좌파 정권 10년 대공 역량 붕괴”

200명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건넨 혐의로 2013년 기소된 유우성은 2004년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왔다. ‘보위부 일을 한다’는 말을 유우성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탈북 동거녀와 동생 유가려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됐다. 동거녀는 “유우성의 화교신분이 노출돼 오빠가 위험해져서 위조 청년동맹증을 북 보위부 간부가 구해줘 보냈다는 말을 여동생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유가려는 합

조선일보는 2월26일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를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 대사관'에 확인한 점, 대사관이 검찰의 조회 요청은 무시하고 민변에만 회신한 점,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을 재판부보다 민변에 먼저 팩스로 보내준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상한 여직원과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윤상현 의원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여직원은 김일성대학에서 5년간 공부한 뒤, 주평양 중국 대사관에서 5년간 근무한 친북 성향”이라는 것이다. 민변은 대사관이 즉 중국정부라고 했다. 동아는 2월 26일 사설 ‘민주당의 간첩 사건 조사에 국익은 실종됐다’에서 “유 씨 변호인 측은 조작을 주장했다. 검찰 등은 비정상적인 공문서 발급을 범죄로 보는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퉈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3월10일 사설에서 “‘간첩 혐의’와 ‘증거 위조’,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 어느 것 한 가지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명료

건강상식

봄은 황사, 미세 먼지, 자외선 등이 많아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기는 계절이다.

그리고 요즘엔 중국 발 미세먼지까지 우리나라로 날아와 하늘을 온통 잿빛으로 만들곤 한다.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으면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다.

- 일년 내내 감기 증상이 떠나지 않고 기침, 가래 등으로 숨이 찬 경우
- 일년 내내 혹은 봄, 가을만 되면 콧물, 재채기, 코 막힘 등과 함께 코가 가려운 경우
- 특정 음식(예: 복숭아, 계란, 우유 등)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 특정 약만 먹으면 부작용이 나는 경우
-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을 보면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피부염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본다.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은 외부적으로는 공기 중의 꽃가루, 황사 등에 의한 이물질 증가, 내부적으로는 봄철 체력 저하에 따른 면역력 약화로 인해서 봄철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하게 된다. 알레르기 비염은 공기 중의 이물질이 비강 점막에 접촉했을 때 면역계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 비강 점막에 염증이 발생한다.

알레르기 비염의 계절

봄철에는 공기 중의 이물질인 꽃가루와 황사가 다량으로 있다. 이 꽃가루와 황사는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면역계가 약화되어 있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비강 점막에 염증을 유발하여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2주 이상 지속되는 맑은 콧물과 발작적인 재채기가 특징. 코감기나 알레르기 비염 모두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준다. 항상 휴지를 주변에 놓고 수시로 코를 풀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입 냄새도 동반해 타인과의 대화도 피하게 만든다.

비염치료는?

코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이 비슷해 감기약만 먹다가 비염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항원을 피하는 회피요법이다. 봄철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항원은 꽃가루. 보통 4월부터 6월까지의 참나무나 자작나무, 포플러 등의 식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시간은 오전 5~10시 사이이므로 이 시간대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간다.

9면으로 이어집니다.

종편TV 재승인 정상화 계기로

다양한 불거리로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높이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종합편성 방송의 2기 재심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3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앞으로 3년 종편 2기 운용에 대한 재심사를 펴고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의결해 종편의 앞날을 열어주었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오는 11월말인 MBN은 오는 11월에 재심사를 하도록 해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전문 뉴스Y 등 4개 채널의 재승인이 이뤄졌다.

4사 모두 기준점 넘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이날 회의는 이보다 앞서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15명의 외부 심사단이 합숙을 해가면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재승인을 의결한 것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야당 추천 위원인 김충식 상임위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 등 2명은 항목별 세부 심사 결과표를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 표결에 임할 수 없다고 퇴장해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방통위원만이 재승인을 의결했다. 밝혀진 심사 결과는 1,000점 만점에 JTBC가 727.01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이어 TV조선이 684.73점을, 채널A가 684.66을 기록했다. 별도로 심사된 보도전문 채널 뉴스Y는 719.76점을 받았다. 승인 기준은 650점으로 이날 2017년 3월까지(채널A는 4월 21일까지) 방송이 재승인된 방송4사는 모두 이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언론관계 시민단체 등은 일방적인 종편 바꾸기 심사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선 외부 심사평가단의 구성이 불공정하게 됐고 방송심의 결과 과징금이 부과돼 심사에서 감점요인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종편 방송사들이 이를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어 심의 결과 미결에 따른 감점요인 미반영으로 큰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또 경영계획의 적정성 분야에서 인력충원도 계획에 크게 미달한 것 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등 당초 종편 출범 때의 사업 계획에 크게 미흡한 점, 보도 시사 중심의 편성, 외주제작 등 콘텐츠 제작도 미흡 등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계획 미달 상황이라도 철저히 심사했다면 부문별 심사 기준 50%를 채우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 비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판적인 사람들은 당초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 사업승인을 받을 때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도 방통위가 재승인을 한 것은 일방적으로 종편만을 봐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사실 이런 지적은 재승인과 관계없이 그동안 종편과 관련해서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 일반 시청자들도 끊임없이 이런 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종편도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이제 지난 2011년 출범 이후의 종편을 개괄함으로써 종편 2기의 발전 방향을 잡아보고자 한다.

방 송 시 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아보기로 한다. 두말 할 것 없이 종편은 앞으로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지난 2013년 종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중은 조선TV가 48.2%, 채널A 43.2%, MBN 39.9%로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보다 월등히 높았고 JTBC만이 14.2%로 나타나 편성 비율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고 지상

파의 19% 비율과 근사치를 보였다. 조선TV는 사업계획에 맞추려는지 아예 올해 보도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을

토크중심 뉴스 심층분석등 인기 교양프로등 확충 고른 편성해야

시청률 1%대 정착 성공

우선 종편은 수 없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범 2년 남짓해서 채널을 정착시키는데 일단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방송 1년 남짓해서 평균 시청률 1%대를 기록했고 현재 종편 4사의 시청률 합계는 지상파 1개 채널과 비슷한 5%대를 기록해 비교적 빠른 정착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낮 시간대의 종편 시청률이 채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상파를 넘어선 것도 있다는 사실은 종편의 앞날을 고무적으로 점쳐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그동안 종편이 다양한 편성과 수준높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방송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욕설, 막말 등 선정적이고 왜곡된 시사 보도물의 과다 편성 등으로 이른 실적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세하나마 광고의 증가 현상 등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보겠다.

출범 이래 지금까지 계속 지적돼온 갖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도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지상파 방송의 뉴스 포맷과 달리 주로 스튜디오에 관계자나 전문가를 출연시켜 토크 중심으로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등 파격과 변화를 주어 지상파를 자극하는 것도 종편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사업계획 제대로 지켜야

다음은 2기 종편의 올바른 방향을 찾

47.8%로 하고 2018년까지 38.1%로 조금씩 줄여나가겠다고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채널A는 2014년 38.9%에서 2018년 28.4%로 줄여나가겠다고 신청했으나 여전히 종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것은 사실이다.

편파·왜곡 벗어나야

다음으로 종편하면 연상되는 막말, 편파, 왜곡에서 벗어나 재미를 살리면 서도 방송의 품위를 높여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방송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종편의 몇몇 보도 토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는 물론 진행자까지도 막말을 쏟아내 그때마다 시청자의 항의와 지적은 물론 심의위의 제재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검증되지 않은 출연자들에게 전문가란 이름을 붙여 이 채널, 저 채널 오가며 편 가르기와 억지 논리 전개로 사회의 분열과 소란을 조장한 일도 부지기수였던 데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이제 얼굴만 보아도,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논리와 해석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직업인이 돼버린 소위 전문가들의 얼굴을 시청자들은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방송 내용과 채널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드릴 것이다.

거듭된 얘기지만 편파, 편 가르기 방송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중파 방송에 대한 시비가운데 하나가 권력에 비위 맞추기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조까지 가세한 진보 편들기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초 기 광우병 촛불시위에 방송이 휘말려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에 역행한 것은 너무나 뼈저린 아픔인데 종편대다수가 우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어떻게 대처해 방송 방향을 유지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공정성과 공익성은 종편이라고 비켜갈 항목이 아니다. 공중파든 종편이든 방송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우리말을 가꾸고 순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종편은 출연자들은 물론 전문적인 진행자까지 말을 함부로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서술이 아니라 말을 비비틀어서 시청자들의 감정을 긁어야 재미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수없이 지적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목소리 거슬려

또 출연자와 방송 진행자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다. 정확한 측정을 해보지 않아 감으로 하는 말이지만 종편 출연자와 진행자까지도 목소리가 평상시 쓰는 것보다 한 옥타브가 높게 들린다. 극단적으로 말해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쓰는 듯하다.

높고 날카로운 소리는 사람을 흥분시키고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얘기의 내용이 자극적이고 신경 쓰게 하는 것이면 내용의 전달보다 듣는 사람에게 불안 심리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발 종편 생방송 출연자와 진행자는 목소리를 반 옥타브 쯤 낮춰 시청자에게 방송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시청자가 편안한 상태로 시청할 수 있도록 다듬기 바란다. 방송평이라기보다 감각적인 것이지만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접촉한 수많은 시청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사항이다.

끝으로 이것도 방송평가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언론사들은 지나치게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종편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신문사들은 종편의 정착이나 역할을 부풀리고 있고 반대로 종편과 연을 맺지 못한 언론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종편을 깎아내리려 해서 공정한 언론의 시각이 아닌 자사 이기주의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주고 있다. 이번 종편 재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종편과 무관한 언론사들은 종편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종편의 사업 계획은 물론 기능과 역할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기사만 싣고 아울러 방통위의 재심사가 잘못됐다는 점만을 기사로 다루고 있다. 결코 종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된다. [국문]

8면에서 이어집니다.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항원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비염 등은 평상시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황사, 미세먼지도 조심

이미 지난달 18일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일부지방은 중국 고비사막에서 날아온 황사와 함께 전국적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 보통 때 비해 7~8배 수준인데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고 외출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각종 중금속과 먼지, 미세한 모래와 흙이 섞여 있는 황사는 모발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미세먼지는 두피의 모공 사이사이에 끼어 두피의 호흡을 방해하고 모낭 세포의 활동을 떨어뜨려 모발 건강을 악화시킨다.

특히 봄 비는 산성도가 높은 비라 반드시 우산을 지참해 가급적 머리가 젖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황사철에는 머리를 매일 감아 청결을 유지하고 먼지

를 달라붙게 만드는 헤어제품 사용은 자제하고 탈모방지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황사와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피부 모공 속에 깊숙이 들어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외출후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피부를 청결히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국문]

이보길 편집위원

인생 2막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 ·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인터뷰 : 글·사진 =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바야흐로 100세 시대. 은퇴 후 30~4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다. 본회 회우들은 시대의 격랑을 헤치며 인생 1막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정관계·공기업 진출이나 사업, 시민사회활동과 지식나누기, 봉사활동 등으로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고 다시 된다. 팍팍했던 일상의 휴지부를 찢고 취미생활을 누리기도 한다. ‘지하철 택배’를 당당하게 체험한 액티브 시니어도 있다. 인생 2막, 다시 뛰는 회우들을 새로 기획, 시리즈로 소개한다.

잘나가는 포털 사이트로

“뉴데일리는 국격회복의 운동화, ‘전국의 아버지’ 찾는 것이 꿈이자 행운이죠”

인보길(74) 뉴데일리 회장은 ‘신문 인생’이다. 고등학교(경북고)때 교지를 만들고, 대학교(서울대 독문과)에서는 문리대 신문 기자였다. 1965년 대학졸업을 앞두고 조선일보 견습 7기로 입사, 편집부장, 문화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종합미디어본부장(상무), 디지털조선일보 대표이사를 거쳐 2005년 은퇴하기까지 뉴스와 더불어 살았다. 조선일보 편집대기자로 젊은 후배들과 함께 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기까지가 ‘인보길 인생 1막’이다.

2008년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 대표로 인생2막을 열었다. 좌파가 판치는 인터넷미디어 사이버 세상에서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네이버 포털에서 잘 나가는 사이트로 성가를 굳혔다. 뉴데일리 부설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이승만 건국 대통령’ 재조명에 앞장, 이승만을 다시 보는 국민적 재인식의 확산에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 2월 ‘뉴데일리 경제’를 창간하는 경영성과와 더불어 회장직에 올랐다.

지난 3월 14일 오후 정동 동양빌딩 5층 뉴데일리 회장실에서 만났다. 편집국을 거쳐 회장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창 너머로 우남 이승만이 1890년대 다녔던 배재학당이 내려다보인다. 옛 동관 3층 벽돌 건물과 수령 520년의 향나무만이 역사를 품고 있을 뿐, 대형빌딩이 들어서 시대의 변화를 실감한다.

-인생 2막도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사신다. 에너지의 원천은?

“새로운 일이 뿔어주는 호기심과 의욕이랄까요. 특히 이승만이 20대에 쓴 옥중저서 ‘독립정신’과 그가 추구한 자유민주주의 신념 등 일대기를 조명하고 재평가하면서 과고들면 들수록 놀라운 발견과 감동으로 눈물이 나오고 힘이 솟습니다. 누구나 이승만의 진실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열정과 애국심이 절로湧솟을 것입니다.”

-뉴데일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관’ 노선도 이승만 정신과 맥을 같이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시(社是)랄까, 시대정

신이랄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호와 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목적이 바로 ‘이승만의 국가정신’과 일치합니다.

DJ와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인터넷 언론매체는 소위 좌파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모두 친북·종북 좌파라면 어패가 있지만 선진사회서 수용하는 진보 좌파가 아니라 급진 좌익 매체들이 많지요. 그들은 괴물 독수리처럼 좌익 날개를 휘둘러 우익 날개마저 꺾으려고 집단공격을 계속합니다. 이를 방어하며 자유민주체제의 균형 발전과 선진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쏟아 붓고 있지요. ‘뉴데일리 경제’ 창간을 계기로 ‘자유민주·시장경제’에서 ‘자유통일·세계시장경제’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뉴데일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시장경제신문’을 타블로이드 24면씩 격주로 발행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서민의 언론’을 캐치프레이즈로 남대문 등 재래시장에 무료로 배포한다. 현장의 소리, 재래시장 탐방 등과 함께 ‘인보길의 역사 올레길’을 통해 ‘이승만 일대기’도 인기리에 연재한다. 인 회장은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은 “신문 인생, 신문과 더불어 사니 행운이다”고 한다.

온·오프라인 경력 49년 바탕 보수파 대변 사이버 경제지도 만들어 ... “전국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정

핫이슈 인물을 찾아 직접 인터뷰도 하는 ‘열혈청년’이다.

-뉴데일리는 ‘또 하나의 인터넷신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Save the Internet’ 가치를 내 걸었는 데 취지는?

“1995년 ‘디지털 조선일보사’를 설립하여 한국 최초의 인터넷신문 ‘디지털 조선일보’를 창간, 10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기술수준은 앞서지만 유통되는 정보는 쓰레기로 넘칩니다. 북한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제쳐놓더라도 막말, 인신공격, 욕설, 역사를 왜곡하고 뒤집는 새빨간 거짓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정보는 진실이 생명이지요. 인터넷의 품격을 높이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열어가려는 취지입니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남덕우 전 총리 등 여러분과 협력단체들의 동참으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승만 살리기’는 ‘국격 회복 운동’-직원과 광고 주주는? 인건비도 만만찮을 텐데요?

“기자를 중심으로 50여명입니다. 광고는 늘 그렇듯이 경제사정과 맞물립니다. 출범할 때 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경영비용은 비밀인데(웃음)…버는 만큼 나눠 씁니다.”

2010년 설립한 뉴데일리 부설 이승만

연구소는 매월 ‘이승만 포럼’(통산37회)을 개최하여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이념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남아카데미를 열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승만 다시보기’ ‘대한민국 건국과정’ 등 시리즈 출판 사업도 펼친다. 하와이등 이승만의 국내외 사적지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승만을 알고 보니 역사를 잘못 배웠다. 현대사를 새롭게 보는 눈을 뗐다”고 했다. 지난해 이승만 연구소를 ‘건국이념 보급회’로 명칭을 바꾸고 건국이념 살리기에 주력한다.

-왜 이승만인가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지난 60여년 간 ‘이승만 죽이기’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소련 스탈린이 ‘남북좌우합작’ 위성국 수립에 실패하고 6·25 무력 공산화도 패배한 이래 대한민국 전복 심리전-사상 전쟁이 바로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역사 지우기’ 작업입니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해방직후 남북합작 공산통일도 되고,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던 제주4·3폭동 등 공산당 투쟁사를 우리 현대사의 정통역사로 명예회복 시킨 정부차원의 역사전복 작업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한



옛 ‘배재학당’이 내려다보이는 정동 언덕에 위치

민국 건국 대통령은 김구’라고 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일성을 만나 ‘남북협상 통일정부’를 세우자며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 후까지 반대한 사람이 백범입니다. 빛나는 항일투사 백범 선생마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악용당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일부 교사들의 행태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요. 6·25 때 충남 당진(唐津) 저의 국민학교 담임선생님. 인민군이 들어오던 날 담임은 철관에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크게 써놓고 반장인 저에게 만세삼창을 부르게 했어요. 그날로 그는 교장이 되었습니다. ‘붉은 소년단’을 조직하고 ‘남조선 해방 축제’로 이 석기가 불렀다는 ‘적기가’ 등 북한노래

다시 된다



병에 온힘



합창, 김일성 연극 등을 준비하여 순회공연에 나섰습니다.”

그 때 열 살짜리 인보길은 선생님이 써준 웅변 원고대로 열변을 토했다. “독재자 이승만, 미국 괴뢰도당을 태평양 깊은 물에 장사 지냅시다”라며 주먹을 쥔 치면 장마당 사람들은 “잘한다~” 박수를 쳤다. 그 선생님은 지방 교육계에 숨어 암약한 남포당 RO 멤버였던 것이다.

-이승만 다시 보기의 궁극적 목표는?

“1995년 조선일보가 해방50주년을 맞아 ‘이승만과

신문 창간 정신 살려야



대한 뉴데일리 편집국.

나라세우기’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열었을 때 저 자신이 이승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왜 매장되어있는지, 왜 대한민국은 ‘건국의 아버지’가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제가 4·19 데모에도 앞장섰기에 책도 읽고 역사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그동

안 反대한민국 세력들이 조작하고 파괴한 현대사의 왜곡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무서운가를 다들 알면서도 정부조차 속수무책 아닙니까? 현재 나라 전체를 그들이 뒤집어 놓은 각본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구청사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큰 현수막이 보입니다. 그것을 걸어놓은 박원순 시장에게 ‘역사를 파괴한 자에게 멸망이 있다’로 바꾸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승만 살리기’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나라 바로 세우기 운동’이자 ‘국격 회복운동’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을 살해한 자손들이 잘 되겠습니까?”

-지난해 11월 광화문에서 ‘북한 인권법 반

드시 제정하라’는 1인 시위도 하셨던데요?

“둘째 딸 인지연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대표예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9년째 계류 중이어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칠 때 동참한 것입니다. 북한 자유화는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숨지는 날까지 울부짖던 민족해방, 독립의 완성입니다.”

-보수꼴통이라고 지탄받거나 협박당하진 않았나요?

“인터넷 기사에 쏟아지는 험악한 악플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지금은 나아졌지만, 어느 날 출근해 화장실에 가보니 붉은 페인트로 ‘즉시 폐간 안하면 몰살’이라는 낙서가 적혀 있어 섬뜩했던 기억도 납니다.”

“언론정신 기자정신 되살릴 때”

-한국 언론이 공정성을 잃고 진영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대안은?

“요즘 한국 언론은 진실보다 원칙이 깨진 듯 참 안타깝습니다. 90년대 이후 정론(正論) 경쟁이 아니라 좌익은 진영논리 싸움꾼으로 변했어요. 종북 이적분자도 진보 완장차고 설치니까요. 메이저 언론 조중동 마저 진상보도-탐사보도를 회피하는 인상입니다.” 언론현상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

“특종경쟁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해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를 특종하자 경쟁매체들이 다른 특종을 발굴하여 만회할 생각보다 채동욱 측 주장과 변명만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는데 정당관련 보도 역시 기계적인 균형만 보일 뿐, 내막을 파헤치는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언론정신 기자정신이 후퇴한 걸까요. 빨리 본연의 기능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참 바쁘게 사신다. 여백의 삶을 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삶의 여백이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그것이 여백일 수도 중심일 수도 있겠지요. 은퇴 후의 삶 자체가 여백이니까.(웃음)”

-은퇴기자들의 노후 활동에 대한 조언은?

“주제넘게 조언이라니요. 사람마다 환경과 취향이 다르잖아요. 숨어있던 재능 발휘 활동이나,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을 듯 싶습니다. 덧붙인다면 젊은이들의 애국심 함양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겠지요.”

-김은구 회장 출범과 함께 부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언론인회 활성화 복안과 ‘大韓言論’의 바람직한 편집방향은?

“김 회장님의 구상과 의욕이 대단하시고 선배배들이 잘 하고 계시잖습니까. 다만, 현직 기자들에게 주는 글로 교훈적인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정동 언덕을 내려와 큰 길까지 배웅해 준다. [4]

이번호 ‘실버 화이팅’은 쉽다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②⑥

붉은 포도주를 마시면 좋은점

붉은 포도주는 기적의 술인가. 비록 수많은 연구들이 붉은 포도주의 좋은 점을 찾아내 발표했지만 기적의 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에 실린 미국 조리연구가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테퍼(Rachel Tepper) 박사의 붉은 포도주 예찬론을 간추려 본다. 학술지 국제암세포지(Cancer Cell International)는 곧 붉은 포도주가 폐암의 성장을 지연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 콜레스테롤 값 낮추고 심장 건강에 좋다.

붉은 포도주 속에는 레스베라톨(resveratrol)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항산화제(antioxidant)로서의 기능은 물론 콜레스테롤(cholesterol)치를 낮추고 심장혈관 벽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당뇨병과 심장병발생 위험을 낮추어 준다. 레스베라톨은 일찍이 프렌치 패러독스(French Paradox)로 잘 알려진 물질이다.

2.남성 전립선암 발생위험을 줄인다.

붉은 포도주를 일주일에 평균 4~7잔 마시는 남성의 경우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위험이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Harvard Men's Health Watch 연구결과)

3.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을 낮춘다.

하루에 한 잔 정도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다. 레스베라톨이 뇌신경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2013년 학술지 ‘BMC Medicine’에 발표)

4. 비록 과식을 하더라도 수명이 연장된다.

쥐를 통한 동물 실험에서 고칼로리 먹이를 먹인 경우에도 레스베라톨을 먹일 경우 수명이 길어졌다.(2006년 하버드 연구진 발표)

5. 붉은 포도주는 식사와 잘 조화한다

가장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하는 지중해식 다이어트에는 늘 한 잔의 붉은 포도주가 곁들여진다. 물론 이 정도의 연구 자료로 붉은 포도주가 건강을 증진시키는 탁월한 기능성식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붉은 포도주가 건강에 좋은 점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다. 자~ 오늘 저녁 우리 모두 붉은 포도주 한잔 브라보(bravo)! [4]



본회산악회 2014시산제 엄수

대한연론인회 산악회(회장 정운종)는 지난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북한산 향로봉 자락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산행을 기원하는 금년도 시산제 행사를 가졌다.

이상호 산악회 부회장(본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산제에서 김영호 고문(본회 이사)은 대한연론인회 산악회의 오랜 역사를 회고하며 “최근 들어 산악회가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집행부

의 역동적이고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요지의 격려사를 해 박수를 받았다. 작년에 이어 낭랑한 목소리로 축문을 낭독해 준 안평선 산악회 자문위원의 역할도 돋보였고 산행 후 가진 뒤풀이는 근래에 드문 대화합의 한마당 잔치였다. 참석한 회우 모두 금일봉을회사한가운데 고재혁 김세경 김영호 안종우 이상호 이정세 정운종 장 옥 최귀조 최상목 회우는 특별찬조로 시산제를 빛내 주었다. [4]

제 24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수상작 발표

제 24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대상(大賞)에 ‘민중의 지팡이’(연합뉴스 사진부 한종찬 기자), 우수상에 ‘남북 넘는 우정’(뉴시스 사진부 서재훈 기자),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경남신문 사진부 김승권 기자)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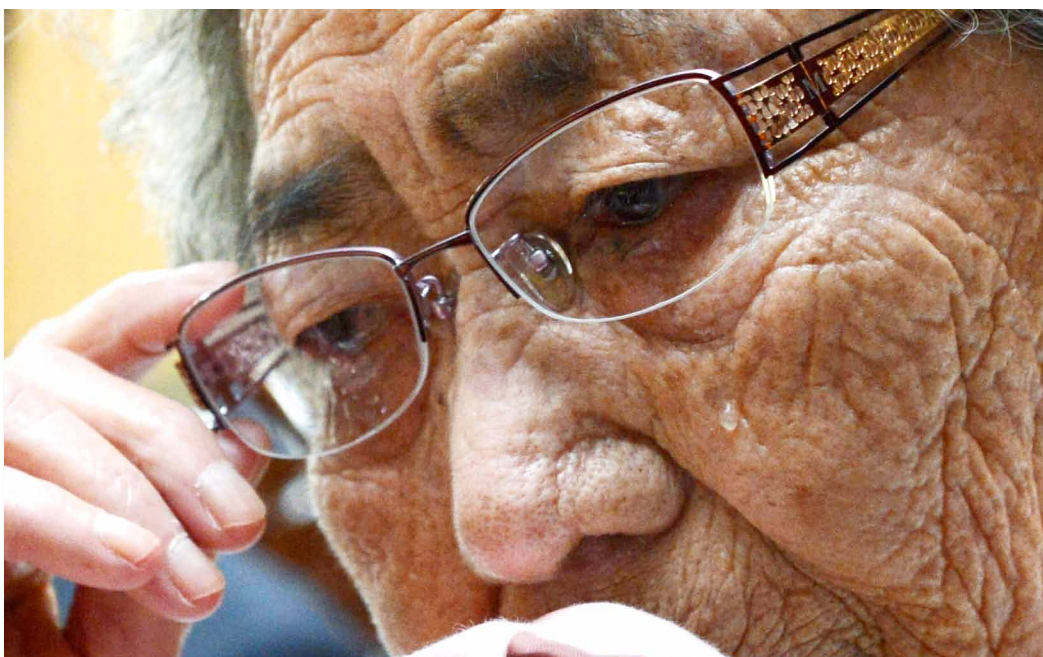
대상인 ‘민중의 지팡이’는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린 국회 앞에서 근무를 서던 경찰이 비를 맞으며 1인 시위를 하는 한 시민에게 우산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큰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인 ‘국경 넘는 우정’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13 동아시아컵 여자축구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기가 열린 가운데 북한 김남희(15번)가 대한민국 지소연이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자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다른 우수상인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은 일본 위안부 피해자중 최고령인 김복득(96) 할머니가 경남도 교육청에

서 열린 ‘나를 잊지 마세요!’ 출판기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 시키고있다.

이번 심사에는 전국의 70여개 매체에 소속된 한국사진기자협회 550여 회원이 100여점을 출품해 ‘사람’을 주제로 한 신문사진의 흐름과 나아갈 길을 보여 줬다. 그동안 대상 1점과 우수상 2점을 선정했으며 우열을 가리기 힘든 뛰어난 사진작품이 많아 장려상 5점을 선정했다.

‘신문사진 인간애상’은 1960년 4·19 혁명 당시 현장을 취재한 사진기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한국신문사진동우회가 ‘인간에’를 실천하며 노력하는 후배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했다. 2007년부터 대한언론인회가 기금을 기탁받아 신문의 날 행사 때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작 심사와 선발은 한국신문사진동우회가 하고 있다. [본문]

시상식= 4월7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



우수상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

김승권(경남신문)

일본 위안부 피해자중 최고령인 김복득(96) 할머니가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나를 잊지 마세요!' 출판기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상소감



한종찬

대상

나는 이미 ‘비에 젖은 생쥐 꼬’이었다. 지난 8월 6일 정오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강한 소나기가 퍼부었다. ‘강한 소나기와 칠흑같은 대낮’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나는 이곳저곳에서 채집했다. 다음 일정때문에 취재를 중단하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경찰이 국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를 맞는 시민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 다행히 손에는 카메라가 있어 나는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다. 온몸에 냉기가 돌았지만, 가슴 한편엔 온기가 머문 하루였다.

(연합뉴스 사진부)



서재훈

우수상

참여 정부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돼 정치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던 지난해 7월 21일, 상암경기장에서 8년 만에 동아시아컵 축구 남북 대결이 열렸다. 긴장감이 넘치는 45분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의 열기가 한참 달아올를 무렵, 대한민국의 지소연 선수가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그라운드에서 쓰러졌다. 그녀는 종아리 부분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자 북한의 김남희 선수가 지 선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다리를 마사지해 주기 시작했다.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선수들의 모습은 경기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국경을 넘어선 ‘한민족’이라는 진한 감동을 선물했다.

(뉴시스 사진부)



김승권

우수상

김복득 할머니(97)는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중 최고령입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과 달리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염없이 우시며 “다음 생애는 좋은 세상 만나 예쁜 족두리 쓰고, 좋은 신랑 만나 아이도 여럿 낳고 오순도순 살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마음을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경남신문 사진부)



우수상

남북 넘는 우정

서재훈(뉴시스)

7월 21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13 동아시아컵 여자축구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기가 열린 가운데 북한 김남희(15번)가 대한민국의 지소연 선수가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자 마사지를 해주고 있다.



장려상

악조건은 없다

조성봉(뉴시스)

생명수당 월 5만원, 연 평균 6명 순직, 3백여명 부상, 평균수명 58.8세, 방호복, 안전화, 개인호흡기 등의 개인안전장비 부족수 3만6,932점. 하지만 오늘도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간다. 사진은 1월 9일 서울 인채소거리의 한 빌딩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 있는 가운데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는 소방관모습.

4월 7일 프레스센터서 시상식



장려상

사랑의 머드팩

박해묵(헤럴드경제)

부부의 날을 맞아 강동구가 모내기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한 노부부가 장난을 치며 활짝 웃고 있다.



장려상

수녀님과 스님

박민규(경향신문)

'사랑의 여름 김치나눔' 행사가 열린 서울 성동구청 앞마당에서 성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인 최성자 수녀(왼쪽)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인 정상덕 스님이 건네주는 김치를 먹고 있다.



장려상

달동네의 캐럴선물

김주성(한국일보)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두고 서울 노원구 하계동 광명교회 어린이 성가대원들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104마을을 찾아 캐럴을 부르며 축복을 나누고 있다.



장려상

역도간판의 눈물

전신(뉴시스)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이 고양시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히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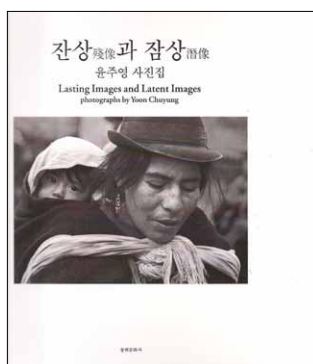
회우들이 펴낸 신간

윤주영원로회우 사진집 '잔상과 잠상'

윤주영 원로회우(조선일보 편집국장·문화공보부 장관역임)가 35년의 사진활동을 총정리하는 사진집 '잔상(殘像)과 잠상(潛像)'을 펴냈다.

이 사진집은 윤주영 회우가 장관을 그만두고부터 시작한 사진인생의 길에서 수확한 70여만장 사진가운데서 “테마별로 그것들을 분류한뒤 가슴과 머릿속에서 살아 숨쉬는 잔상들만을 수록한것”이라고 했다. 7장 252페이지의 이 사진집은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메고 고산병에 시달리며 만났던 ‘안데스 사람들’ ▲내세를 기다리며 마지막을 살고 있는 네팔 카트만두의 ‘내세를 기다리는 사람들’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로 끌려가 버려졌던 우리 동포들의 참담한 모습의 ‘동포의 민들레’ ▲정부의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 폐광한 ‘탄광촌 사람들’ ▲우리나라 자식들을 길러낸 어머니들의 땀흘리는 모습의 ‘석정리역의 어머니들’ ▲‘갯벌의 어머니들’ ▲세월에 따라 빠르게 변한 ‘5일장의 정경들’ -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얻어낸 작품

들이다. 52세에 사진활동을 시작한 윤회우는 그동안 33회의 개인전, 21권의 사진



집을 낸바 있다.

또 윤회우는 남미 네팔 사할린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해외활동 작품외에 우리나라 지도급 인사들의 걸어온 길인 백인백상(百人百像)도 펴냈다. 그의 사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 관한 것으로 사람을 탐구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동화문화사 발행·책값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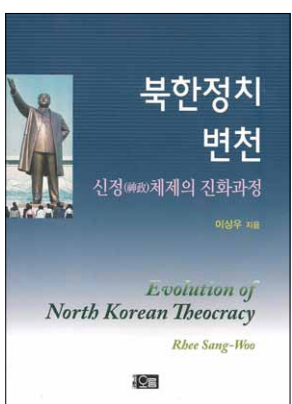
※윤주영 회우는 오는 4월9일(수)부터 15일(화)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지하1층)에서 ‘잔상과 잠상’ 사진전을 갖는다. [출처]

이상우 회우 '북한정치 변천'

한국의 대표적 정치학자인 본회 회우 이상우 박사(신아시아연구소 소장·서강대 명예교수·전 한림대 총장)가 새 저서 '북한정치변천'을 펴냈다. 40여년 간 서강대와 한림대에서 북한정치를 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필한 이 책은 '북한정치 교과서'다. '신정체제의 진화과정'이란 부제가 붙은 책 첫 머리에서 저자는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신정체제 국가’ 북한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북한을 안을 수 있다...시대 흐름 속에서 북한 정치체제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복잡하게 얽힌 북한 정치의 참 모습을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도록 쉽게 쓴 책”이라고 말한다.

책은 제목에서 보여주듯 서장에서 '북한정치 60년간의 변천'을 개관하고 제1부 '북한 신정체제의 변화과정', 제2부 '북한통치체제와 이념', 제3부 '기능 영역별 체제와 정책', 제4부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앞날에 관한 전망이다. 이 박사는 마지막 장 '체제개혁의 한계'에서 “북한 지도자의 자세, 북한체제 내부의 정세, 그리고 외부정세 등 모두를 감안해 볼 때 북한은 결코 현존 체제를 개혁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부분적인 정책 조정과 경제영역에서의 부분적 시장 경제체제 수용을 통하여 장기 안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리라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중국식 또는 베트남식 경제 개혁은 시도할 것이나 절대화된 신정체제를 개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결국 당분간 한국은 적대적인 북한과 장기간 공존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끝을 맺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북한 내부의 부조리가 통제 불능 상태를 가져 오는 체제의 내재적 붕괴 가능성, 체제 괴로 현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들면서 “북한 왕조 체제가 자리 잡은 지 100년이 되는 21세기 중엽이면 북한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북한정치를 체계적으로 알아보려는 회우들의 일독을 권한다.

이상우 박사는 미국의 ‘패시픽 포럼’, 일본의 ‘아시안포럼 저판’, 중국의 연구소등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와 학술토론 교류를 하고 있으며 신아시아연구소에서 남·북한과 한·미, 한·중관계 등 월례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도서출판 오름·국판 459쪽·값 2만 2천원) [출처]

김성순 회우 별세

김성순 회우가 3월 15일 새벽 4시 별세했다. 향년 79세.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17일 오전 4시 발인했다. 고인은 1935년 전남 나주에서 출생,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60년 대한



일보 사회부기자(견습 1기)를 시작으로 언론계와 인연을 맺었다. 그 후 매일경제신문 사회부 차장, 전남매일신문 서울지사 취재부장, 한주약품 이사, 후생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출처]

독일출신의 의사 막스 거슨(Max Gerson)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암을 예방하고 또한 근치(根治)하는 그의 식사요법은 금세기 최고의 대체(代替)의학으로 기록된다. 그는 치료자(Healer)로 불리지만 자수(自修)한 사람이 아니라 현대 의학을 이수(履修)한 의사다. 1881년생의 그는 의학생 시대 자기의 편두통을 식사제한으로 컨트롤 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먹거리로 중병(重病)을 고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뮌헨 대학병원 결핵전문부 부장을 지낸뒤 1933년 뉴욕에서 미국의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다. 이후 20년동안에 걸쳐 거슨은 말기암 환자를 철저한 먹거리(식사)제한과 먹거리 선택으로 고치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

생애를 통하여 친구였던 노벨 의학상을 받은 슈바이처의 당뇨병을 먹거리와 다른 건강처방으로 고치기도 했는데 1959년 거슨이 죽자 슈바이처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보낸다. “나는 거슨을 통하여 의학사상 가장 걸출한 사람의 천재를 본다. 그의 기본적인 생각의 많은 부분이 거슨이라는 관사(冠詞)를 붙이지 않고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달성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마침내 그에게 정당한 지위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의 치료로 암을 고친 사람들이 거슨의 생각이 바름을 증명하기에 이르르고 있다.”

거슨이 남긴 『막스 거슨 암 식사요법 전서(全書) A CANCER THERAPY Results of Fifty Cases and The Cure of Advanced Cancer by Diet Therapy MAX GERSON』은 국판 49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인데 1993년 7쇄(刷)의 일본 번역본을 20년전에 산 것이다.

막스 거슨이 말기암 환자 50명을 식사요법으로 고친 사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고전적 명저를 통독한 결과, 야채와 과일주스를 만들때 조리기구까지 규제하고 있는 거슨의 암치료 방법은 ‘거슨 클리닉’에 들어가지 않고는 규칙대로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대량 투여하는 주스의 원료인 과일과 야채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는 치료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농산물, 곧 과일과 야채가 농약에 의해 오염되고 있는 현실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말이다. 더구나 거슨 요법속에 들어있는 간암환자에의 ‘송아지 간 주스’는 품질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거슨 생전에도 문제가 된적이 있고 보면 개인에겐 버거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거슨이 간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의 원안(原案)은 의사들에 의해 더러는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일본 의사들 몇사람이 눈에 띄고 있다.

막스 거슨 요양원은 현재 미국에는 없고 멕시코의 티파나시에 ‘거슨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딸 샤토티에 거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데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7>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막스 거슨 · 진 카파의 먹거리 요법(上)

그것은 미국에서는 대체의학이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거슨 생전에 받기로 되어 있던 정부의 지원금이 미국 암학회가 들쭉서서 지급중지가 되었다는 사실도 슈바이처가 조사(弔辭)에서 지적한 ‘불리한 상황’에 들 것이다.

거슨의 식사요법에 들어있는 ‘암치료식과 방법’에는 보통의 식사와는 전혀 다른, 밥이나 빵같은 주식 개념의 먹거리와 반찬이 일체없다. 과일과 잎아채(葉菜類), 무당근 우영같은 근채류(根菜類)등을 갈아서 만든 신선한 주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이거나 잘게 썰어서 먹는 대량의 과일과 야채, 야채와 과일샐러



권도홍

·본회 회장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스테인리스제품이나 유리 사기그릇은 권장하고 적고 있다.

암치료에 필요한 먹거리로는 통조림을 제외한 과일중 사과 포도류 버찌류 망고 복숭아 오렌지류 살구류 그레이프 푸르츠류 바나나 멜론 파파야류 감류. 말린 과일로는 살구 복숭아 포도등속에서 유황으로 소독하

지 않은 것은 무방하다. 과일이나 야채주스는 반드시 갓 짠것이어야 된다. 아침에 하루치 주스를 짜 놓는 것은 금물이다. 마시는 양은 처음 소량으로 부터 시작해서 점점 양을 늘린다. 8온스 컵으로 일곱잔인데 1온스는 28.35그램이므로 하루에 1.5킬로그램 이상의 주스를 마시게 되는 셈이다. 종류

불치의 병을 고치는 과일과 야채

드, 야채가 지닌 수분만으로 물을 더하지 않고 삶은 야채시추, 오토밀 히포크라테스 수프, 소금기가 전혀 없는 호밀빵 등이 거슨요법의 주 메뉴에 드는데 치료개시후 6주에서 12주가 지나면 치즈, 스킴밀크로 만든 요구르트 등 동물성 단백질도 먹게 된다고 한다. 이런 식사가 치료의 기본이 되며 몸의 조직에서 소금기, 곧 나트륨을 가능한 한 뽑아내고 대신 칼륨이 가능한 한 신체의 많은 조직에 스며들도록 하는 원리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사는 빨리 소화되므로 대사(代謝)의 부담을 가능한 한 가볍게 하고 대사의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물질의 배출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섭취칼로리는 적고 빨리 소화되므로 환자는 자주 대량의 식사(주스 등)를 마시게 된다.

금지 품목은 담배 소금 강한 향신료 커피 차 코코아 초콜릿 알콜 설탕 밀가루 캔디 아이스크림 과자 건과류 버섯 콩 콩제품 오이 파인애플 물(주스로 충당하므로) 아보카도 통조림 등 보존식품, 표백한 완두콩 그 외 콩 종류 냉동식품 훈제된 야채, 건조 또는 가루로 만든 식품, 강통이나 병에 든 주스, 모든 유지류(油脂類), 소금의 동류품(同類品) 특히 치약 가글등에 들어있는 중탄산(重碳酸) 나트륨, 머리카락 염색약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많은 요소가 들어있다.), 일시적으로 금지품목은 우유 치즈 버터 생선 육류 달걀등인데 조리기구로 압력솥이나 일체의 알루미늄제품은 쓰지 말고

로는 오렌지 주스 1잔, 사과와 당근주스 1잔, 푸른잎 야채주스 1잔, 그레이프 푸르츠 1잔, 포도주스 1잔, 토마토 주스 1잔, 사과주스 1잔 등으로 되어 있다.

거슨 요법에는 커피 관장(灌腸)이 필수요건으로 되어있다. 그것도 하루에 한번이 아니라 거슨 클리닉에서는 밤이나 낮을 불문하고 하루에 4시간마다 한번씩 관장을 시킨다고 한다. 몸에서 유해 물질을 뽑아내어 신체를 해독하기 위해선 절대로 필요한것이 관장이라고 못박고 있다. 또 하루 걸러 큰 손칼로 두 손칼의 피마자 기름을 먹게 한데 피마자 기름은 일종의 하제(下劑)·설사가 나게 하는 약)이고 서양에서는 피마자를 ‘예수의 손바닥(palm christly)’으로 부르는 독소배출용 기름이다. 거슨은 몇 사람의 암환자를 간성혼수(肝性昏睡)로 죽게 한 일이 있는데 이들의 죽음은 주스나 관장으로 유해물질을 자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 자신이 몰랐기 때문에 관장을 게을리 한 결과라고 적고 있다. 종합식사 요법의 처방전(제33장)도 앞에서 든 것과 비슷한데 단지 이 치료에는 의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암이 치유되기전에 나타나는 호전반응(好轉反應)이나 만성적인 감염증, 몸의 쇠약등이 복잡하게 얽힌 증상이 발생하므로 그때 대처하기 위해선 특별한 의료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식사요법에 필요한 식품은 앞서 든 것과 같고 다른 것은 고구마류와 오토

밀 등이다. 모든 먹거리는 섭취하기 직전에 만들어야 하고 소금기는 제외해야 하는데 거슨요법의 기본이 식사처방이기 때문이다. 그 주된 목적은 몸 전체를 청정하게 하여 해독하고 간장의 대사(代謝) 곧 음식의 섭취에서 배출까지 소화 흡수에 있어서의 변화과정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금지 품목도 앞서 든것과 거의 같으나 지방산이 많은 오이를 금하고 있다. 통조림 식품은 일체 금지하고 물도 마셔서는 안된다고 적고 있다. 모든 마시는 것은 주스와 수프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시고 먹는 모든 식품은 유기재배된 것이어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거슨의 ‘식사요법전서’를 아주 요약한다 하더라도 몇회분을 쓰야 할텐데 이 글을 읽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대한언론인회 회우중에 암을 앓는 사람이 별로 없을터이므로 멀쩡한 사람이 기나긴 암 이야기를 읽기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야기를 미국의 영양학자 진 카파(JEAN CARPER)의 병을 고치는 식품 이야기로 바꾸기로 한다.

진 카파는 신문기자 출신의 저명한 여류 영양학자다. 그의 저서인 『음식- 당신의 불가사의한약 FOOD-YOUR MIRACLE MEDICINE』과 일본 번역본 제목 ‘기적의 식품’으로 되어 있는 ‘불가사의한 치유’(MIRACLE CURES)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내가 만만찮은 몇가지 신병(身病)을 스스로 고친 ‘나의 치병기(治病記)와 건강법’은 따로 쓰겠지만 내가 투병 끝에 건강을 되찾는데는 진 카파의 두권의 저서가 상당히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첫째는 ‘불가사의한 치유’ 속에 들어있는 간장질환을 고치는 엉경퀴다. 엉경퀴를 국어사전대로 풀면 ‘줄기는 높이 1m 내외이고 잎은 날개 모양으로 크게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우상심열(羽狀深裂)이다. 6-8월에 튼트 모양의 머리꽃(頭花)이 줄기 끝과 가지 끝에 하나씩 핀다. 거의 한국의 각지에 분포하는 흔한 야생초다. 흔하기는 하지만 약효로 보면 귀한 약초다. 엉경퀴(Milk Thistle)의 주성분인 ‘실리마론’(Silymaron)은 간장질환을 수복하는 막강한 원군(援軍)이다. 내가 50대에 심한 지방간으로 시달릴때 복용한 간장약인 독일제 ‘레가론’의 주성분이 ‘실리마론’이다.

진 카파의 ‘불가사의한 치유’에 ‘간장의 건강을 지켜주는 엉경퀴’라는 제목으로 엉경퀴의 전모가 상세하게 실려있다. 그 한 구절을 인용하자.

『유럽인은 미국인보다도 간장에 주의와 경의(敬意)를 표하고 있는데 엉경퀴라는 간장약이자 치료약에 의해 강력하게 간장을 보호받고 있다. 엉경퀴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유명한 간장약이다. 간장의 손상을 예방하고 역전시킬 수가 있고 세포와 큰 범위의 간장조직을 재생시킬 수가 있다. 그 연구의 대부분은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독일 정부는 엉경퀴를 건강변과 만성간염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약으로 승인하고 있다.』

송해 선생님이 도맡기는 은행은?

IBK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



중국이 베낀 호반마을 · 봉인된 중세도시

동유럽 여행 불편 '3중 세트'

7박 8일 동유럽 여행이 비행기불시착으로 하루 늘어났다. 지난 2월 27일 체코 프라하를 출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체코 항공기가 러시아 상공을 통과할 무렵 엔진 고장으로 모스크바 공항에 불시착했다. 320여명 대부분이 한국인 관광객들이다. 공항에 내렸으나 언제 어느 비행기로 떠날지 모른 채 미확인 정보만 미세먼지처럼 떠돈다. 최근 종영된 드라마 대사처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두 시간 쯤 지났을까. 러시아 주재 대한항공 직원이 나타났다. 공항 측에서 언어지원을 요청해 시내에서 곤장 달려왔고, 그들을 통해 다음 날 오전 같은 비행기로 떠난다는 확인된 정보를 들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부터 한-러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되어 공항 부근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무사히 귀국했지만 며칠 동안 공중에 붕 떠 있는 듯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 다른 불편은 화장실이다. 대부분 유지관리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유료 화를 쓰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자동 티켓 박스에 1유로 동전을 넣으니 티켓과 함께 거스름돈 50센트가 나온다. 지하철 회전 개찰구 비슷하게 밀고 들어간다. 소변기가 너무 높아 까치발을 하고 볼 일을 보면서 내 키가 낮은 걸 탓했다. 장거리 이동을 한 뒤 체코 프라하에 도착하여 공중화장실에 들러 유로 동전을 넣으니 계속 토해낸다. 관리인이 안내판을 가르키며 체코 동전 코로나를 넣으라고 한다. 환전해달라고 했으나 화장실에서는 환전이 안 된다니 참을 수 밖에. 종종걸음 치며 프라하 성까지 가면서 일행 중 한 분이 “체코에 오려면 귀저기를 가져와야 겠다”고 말해 웃었다.

동유럽은 흡연자의 천국이다. 도심 곳곳에 휴지통과 재떨이가 즐비하고 관광명소에서도 담배를 예사로 피운다. 문제는 프라하공항에서다. 아무리 둘러봐도 흡연실이 없다. 안내 데스크에 물으니 레스토랑에 가라고 일러준다. 담배 한 개 피우려 5유로하는 음료를 마셨고, 비행기 탑승 전 6유로 커피를 마신 뒤 또 피웠다. 누굴 탓하랴, 골초가 문제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등 3국의 대도시 문화유적을 둘러봤으나 인상에 남는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호숫가 마을과 체코의 중세도시 체르니 크롬로프를 소개한다.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아름다운 풍경과 마주하면 그림엽서 같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의 작은 호숫가 마을 할슈타트(Hallstatt)가 그런 곳이다. 호수를 품은 마을은 한 폭의 수채화다. 그 마을을 중국이 통째로 베낀 ‘중국판 할슈타트’를 조성해 화제가 됐다. ‘짜퉁 천국’다운 발상이다. 중국 국영 부동산 업체인 차이나 민메탈사가 우리 돈으로 약 1조 1080억 원을 들여 광둥성 후이저우에 모방해 놓았다. 할슈타트를 흉내 내기 위해 인공 호수를 만들고, 중세풍의 교회와 시계탑, 나무들까지 그대로 복제했다고 한다. 할슈타트에서는

동유럽 비경지대를 가다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의 호숫가마을 할슈타트 전경. 아름다움에 반해 중국이 광둥성에 ‘짜퉁 할슈타트’를 조성해 화제가 됐다.



화려한 장식의 호라데크 원통형 탑과 고딕 양식의 교회 첨탑, 붉은 지붕의 건물이 보존된 중세도시 체스키 크롬로프, 필자가 포즈를 취했다.

‘역사와 전통을 베꼈으니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도시를 알리는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으로 나뉘어 논란이 일었으나 관광홍보 차원에서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츠카머구트는 비엔나에서 관광버스로 3시간 30여분 넘게 걸려도 지루하지 않다. 고속도로를 지나 지방도로로 접어들자 차창 밖으로 만년설을 머리에 인 알프스 산자락이 스치고 초록빛이 짙어지는 밀밭사이로 ‘봄의 왈츠’가 흐른다. 잘츠카머구트 지역은 70여개의 호수마을이 있지만 흑진주로 불리는 할슈타트의 풍광이 가장 빼어나다. 빙하가 녹아내린 호수는 맑고 푸르다. 잔잔한 호수 위로 하얀 백조가 유영을 즐기듯이 마을은 평화롭다. 호수를 발끝에 펼치고 산자락에 오밀조밀 들어선 목조 주택은 돌과 바위,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집 외곽도 양증맞고 예쁘게 꾸며놓아 그 자체가 예술이다. 점심시간에 들른 레스토랑은 암벽을 뚫어 동굴식당처럼 멋이 넘친다.

산자락과 호수사이 마을은 외길로 고살길을 걷듯 호젓하다. 여행의 썬표를 찍듯이 느릿느릿 걸으며 아름다운 풍광을 카메라와 마음에 담는다. 마을 들머리 커다란 바위에 달아 놓은 자그마한 목판 안내판도 마을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가게마다 색다른 기념품을 팔지만 천연소금은 대부분 비치해 놓았다. ‘천연소금’이라 쓴 한글 안내가 반갑다. 이곳에 소금이 많은 이유는 BC 2000년 경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염

광산이 있던 곳이다. 지명의 잘츠(salz)는 독일어로 소금이다. 마을의 중심은 마르크트 광장이다. 광장이라고해야 우리나라 농가의 앞마당 보다 조금 넓고 담박하다. 광장 주변엔 생 마리 교회, 주택과 레스토랑과 카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정겹다. 쉬엄쉬엄 둘러봐도 두 시간이면 족하다.

중앙광장 뒤 언덕에 있는 ‘할슈타트 분묘군’이 유일한 유적이다. 이곳의 독특한 장례문화는 일정기간 매장해 두었다가 유골을 꺼내 건조 시킨 뒤 고인이 좋아하던 색깔을 칠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새겨 납골당에 보관한다. 경사가 심한 지형 때문이라고도 하고, 망자를 가족처럼 가까이 두려는 특유의 ‘할슈타트 장묘문화’라고 한다. 유럽 초기의 철기 문화가 이곳에서 발견 됐음을 뒷받침하듯 철제 묘비도 눈에 띈다. 마을 전체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중국이 만든 ‘짜퉁 할슈타트’의 외형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세월과 함께 축적된 할슈타트의 역사와 전통, 문화는 베낄 수 없다.

●체코 체르니 크롬로프

보헤미안처럼 떠돌다 보헤미아의 고도(古都)와 만났다.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200여km 떨어진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체코 체스키 크롬로프는 완벽하게 봉인된 중세도시다. 이 지역 원주민은 집시였으나 13세기 남 보헤미아의 대 지주 비트코프가 이곳에 터를 잡고 고딕 양식의 성(城)을 짓기 시작한 것이 도시의 시작이다. 그 뒤 르네

상스, 바로크시대의 건물들이 덧씌워졌지만 18세기 이후 지어진 건물은 거의 없어 중세도시의 특징이 고스란히 보존됐다. 영주들이 살던 대저택의 화려한 가구와 벽화, 극장과 정원에서 당시 귀족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체코가 공산국가였던 시절에는 낙후된 도시에 불과했으나 배낭족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1992년 300여 개 이상의 건축물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 됐으니 도시 전체가 중세유적이다. 성을 잇는 플라슈티 다리(망토 다리)에 올라 바라보는 옛 도시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시감이 멈춘 듯 숨이 막힌다. 볼타바 강이 S자 형태로 도시를 휘감고 흐른다. 체스키 크롬로프 성과 화려한 장식의 호라데크 원통형 탑과 고딕 양식의 교회 첨탑이 파란하늘을 배경으로 솟아 있고, 붉은 지붕의 건물들은 동화마을을 연상 시킨다.

영주를 모시던 하인들이 거주했다는 라트란 거리는 고풍스러운 운치가 넘친다. 조약돌이 반질반질한,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미로처럼 얽혀있다. 좁은 길을 걷다보면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을 파는 상점과 예쁜 카페, 창문에 책과 그림을 걸어놓은 낡은 서점, 알록달록 그림 간판이 양증맞은 인형박물관이 골목길을 돌 때마다 번갈아 나타나며 길은 스보르노스티 중앙광장으로 이어진다. 페스트 퇴치기념탑이 세워진 광장 주변으로 고딕과 르네상스 양식이 혼합된 시청사를 비롯하여 호텔, 기념품점, 레스토랑 등 고딕과 바로크 양식의 중세 건물이 들어서 건축박물관을 연상시킨다.

아름다운 고도에 슬픈 영혼과 비극적인 전설이 서리어 집시처럼 애잔하다. 성과 죽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19세기 오스트리아의 대표화가 에곤 실레 아트센터에 잠시 발길을 멈춘다. 소녀들의 누드 그림과 불안 공포 욕망이 일그러진 자화상이 눈길을 끈다. 그가 직접 만든 검은 침대와 책상, 거울 등이 전시된 소박한 예술 공간이다. 체스키 크롬로프는 에곤 실레 어머니의 고향이다. 그는 이 도시에서 음란한 그림쟁이라고 쫓겨나 잠시 옥살이를 할 때 “나는 생을 사랑한다”고 일기에 썼지만, 1918년 독감 바이러스로 임신 6개월의 아내가 숨지고 자신도 감염되어 3일 만에 28세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

라트란 거리와 구시가를 연결하는 ‘이발사의 다리’에도 슬픈 전설이 서렸다. 옛날 체코의 대 영주 루돌프 2세의 아들은 정신질환이 있어 요양을 하러 체스키 크롬로프 성에 왔다가 이발사의 딸을 보고 반해 결혼했다. 그 딸은 얼마 후 목 졸려 숨진 채 발견 된다. 광기에 사로잡힌 루돌프 2세 아들은 아내를 죽인 범인이 잡힐 때까지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죽였다. 끔찍한 학살을 보다 못한 이발사는 “내가 딸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해 사위의 어리석은 처형을 멈추게 했다. 그 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발사를 추모하며 세운 다리가 이발사의 다리다. 목제다리 난간에 기대어 무심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세도시에 얽힌 영욕을 되새김한다. [국문]

살기좋은 농어촌 3농혁신으로 열어갑니다!



- ✓ 친환경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 ✓ 지역순환 식품 체계 구축 및 유통 구조 선진화
- ✓ 살기좋은 삶의 터전 건설
- ✓ 도·농교류 활성화
- ✓ 지역기업 육성

3농혁신
살기좋은 농어촌



회우동정

가나다순

박근혜정부 '474비전' 특강



곽찬호(일본 섬연신문 논설위원)원로회우= 지난 2월 28일 오전 11시 성동구 보훈회관에서 서울 성동구보훈단체 간부 95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 474비전-목표달성 가능한가' 주제로 강연.

문화일보 수요초대석 인터뷰



권영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회우= 3월 5일자 문화일보 35면 수요초대석에서 문화예술 전반에 관해 언급하면서 "예술로 밥 먹고 살 수 있어야 삶도 경제도 윤택해진다"는 소신을 피력.

서울신문 사우회회장 재선



김문진(전 서울신문 전무)부회장= 지난 3월 13일 오후 4시 프레스클럽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재 선출.

해외 6·25 참전용사 손자녀에 장학금



김인규(한국전쟁참전기념재단 이사장)회우= 지난 3월 28일 서울 용산 한국전쟁기념관에서 터키 미국 영국등지에서 한국으로 유학온 한국전쟁참전용사의 손자녀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기자협회 50년사 편찬위원장



박기병(전 강원민방 사장)상담역=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가 7월에 발간할 예정인 '한국기자협회 50년사' 편찬위원장으로 위촉.

중앙대 초빙교수 위촉



백인호(리빙 TV 회장)회우= 금년 새 학기부터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

한국방송기자클럽 고문



신대근(전 대구 MBC사장)회우= 지난 2월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13대 회장단 인사에서 고문으로 추대.

한국방송기자클럽 부회장



심의표(전 KBS 부산방송총국장)회우= 지난 2월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13대 회장단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추대.

조선일보 사외이사



안병훈(도서출판 기파랑 대표)회우= 지난 3월 20일 조선일보사 2014년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

치매 주제 세미나



이광영(한국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논설위원= 4월 2일 서울시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주제로 세미나 개최. 본회 호천옹회우는 토론자로, 이민희 회우는 선언문을 낭독.

'광고사랑 캠페인' 전개



이원창(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회우= 3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대기업들이 국내광고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농협정보시스템 감사위원장 재선임



이종연(농협정보시스템 감사위원장·전 경향신문 논설위원)회우= 3월 13일 열린 농협정보시스템 정기 주주총회에서 농협정보시스템 감사위원장에 재선임.

한국방송기자클럽 이사



이철영(전 KBS 부다페스트특파원)편집위원= 지난 2월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13대 회장단 인사에서 이사로 선임.

'초록향기'에 시 10편 실려



이학주(전 한국경제 편집부장)원로회우= 초동문학예술협회가 발행한 동인지 '초동문학 초록향기'에 '아내의 손' 등 시 10편이 실렸다. 이 원로 회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다고 한다.

채널A '쾌도난마'에 고정출연



이흥우(시사만화가 '나대로')회우= 매주 금요일 오후에 방영되는 종편 TV 채널A '쾌도난마'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남양홍씨 남양군파 대종회장 취임



홍원기 본회 명예회장= 지난 3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청소년수련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남양홍씨 남양군파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홍 회장은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감사, 노컷뉴스 회장, 대한언론인회 17대, 18대 회장을 역임했다(전화 02-966-1593)

故이효계 명예회우를 추도함

제재형(본회 고문)

내게는 두가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보이면 먼저 간쥴 알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유언입니다.

둘째는 밤 늦게 걸려오는 전화 벨소리, 거의 슬픈 소식이 많기 때문이지요.

지난 2월27일 오후 2시 낮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효계 장로의 아들 정훈인데요. 아버지께서 30분전 운명(殞命) 하셨습니다." 1935년 9월1일 여수 태생이며 향년 79세로 이승을 떠난 친구의 부음을 받고 나는 순간 멍청해졌습니다. 얼마전 "형님, 설도 지났으니 꽃샘추위 풀리면 점심도 먹고 영화 구경도 합시다." 그 전화 목소리가 마지막 인사였구나! 생각되니 슬픈 마음 가눌길 없습니다.

주먹쥐고 태어난 사람이 빈손들고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지만 이 장로님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은 비길데 없는 상실감을 더해 줍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한국성서연구회 성경공부 때에도 고통과 사망이 없는 천국행을 기원했지만 장로님의 80평생은 선공후사(先公後私) 애국헌신(愛國獻身) 여덟자로 요약되는 청백리의 사표(師表)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효계 명예회우에겐 대명사가 많습니다. 고등고시 합격후 공직생활 50년 동안 거쳐간 비서관 시장 도지사 장관 사장 대학총장등 직분에 따른 인칭대명사가 수두룩하지만 그중에서도 영원한 대명사는 소망교회 '장로' 이기에 이 장로라 호칭합니다. 내무부와 청와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실무를 맡았으며 광주 직할시장때는 5·18 사태를 슬기롭게 수습했지요. 전남 도지사 시절엔 돼지머리를 얻어 놓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기도를 올렸다는 일화를 남겼다지요. 한국토지공사 사장때는 땅 한평 거들떠 보지 않은 청렴결백을, 농림부장관 때는 식량자급과 이도(吏道) 쇄신에 열중함으로써 뇌물 청탁에 흔들리지 않은 정직 성실한 청백리로 일컬어졌습니다.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의 나이 70에 모교 숭실대 총장에 취임, 임기 4년동안 '무보수 총장'의 드문 기록을 남긴 이 장로님은 8만 동문과 8천 교회의 호응을 얻어 900억원의 발전기금을 모아 기독교 대학의 굳건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 논란, 갈광질광 흔들리는 역사교육, 중구난방 백가쟁명의 언론문화를 걱정하던 이 장로님은 2007년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대한언론인회의 일원으로 동참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언론문화 창달에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듯이 이 장로님은 나이테와 인생 관록이 더해 질수록 겸손과 섬김의 삶에 앞장 섰습니다. 최근에는 '노년세대의 새마을 운동'을 다시 불 지피려 근면 자조 자립 협동 자활의 생활기풍을 진작 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공수래·공수거의 헛되고 헛된 수유(須臾) 인생의 발자취나 그림자라도 아름답게 물들이고 싶다고 항상 되뇌이던 이 장로님은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혼은 하늘나라 주님의 품으로, 육신은 화장되어 '소망의 동산'에 뿌려졌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공수래·공수거의 헛되고 헛된 수유(須臾) 인생의 발자취나 그림자라도 아름답게 물들이고 싶다고 항상 되뇌이던 이 장로님은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혼은 하늘나라 주님의 품으로, 육신은 화장되어 '소망의 동산'에 뿌려졌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4년 2월 28일 부터 3월 31일까지)

고귀남(14)	원종선(14)
김영일(14)	윤병찬(14)
김은구(15,16)	윤양중(14)
김창구(14)	윤주영(14)
노상국(14)	은종일(14)
박범진(14)	이흥우(14)
성낙오(14)	장석영(14)
안광식(14)	정운중(14)

4월 건강포럼 개최

일시: 2014. 4. 12(토) 14:00
주제: '노년기 우울증의 이해와 희망 찾기'
강사: 서경순 상담실장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장소: 명동임구 외환은행 앞
이윤수 비뇨기과 홀
담당: 이보길 (010-4461-5657)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꿈과 끼를 키우는 **서울행복교육**

www.sen.go.kr



무심코 보낸 문자 하나가 친구를 아프게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도움이 필요할 땐?



서울 Wee 센터

02-3999-505

www.wee.or.kr

m.wee.go.kr



교육부

117

Stopbullying.or.kr

m.stopbullying.or.kr



경찰청

117

www.safe182.go.kr

117 Chat APP



서울특별시교육청

8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
2006년~2013년 디스플레이서치 기준
세계TV 점유율 1위

곡선으로 인해
디테일은 경이로워지고, 입체감은 완벽에 가까워지고
디자인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며, 컬러는 더 강렬해질 것이다

곡면화질이 만든 압도적 몰입감
세계 최초 커브드 UHD TV



홍명보

삼성 커브드 UHD TV 모델 홍명보



모델명 : UN65HU9000F
해당 모델은 매출시 제품으로 예니지 효율등급 미확정입니다

삼성 UHD TV Curved
Ultra High Definition 4K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커브드 스크린
일반 영상도 UHD급 화질로 표현하는 UHD 업스케일링

생생한 입체감을 더해주는 원근 강화 엔진
자연에 가까운 리얼 컬러를 재현하는 퓨어 컬러

삼성전자 SAMSUNG